

1234567890



ABCD



$$x+y=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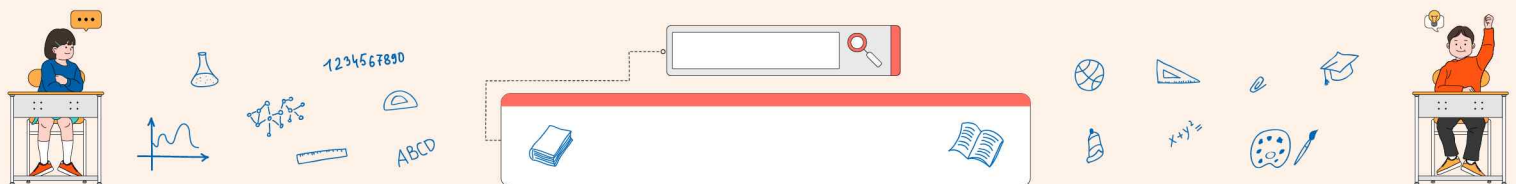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6
4	讲义	56
5	퀴즈	76
6	토론	81
7	자료	83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은 한국의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끌어 낸 학교 교육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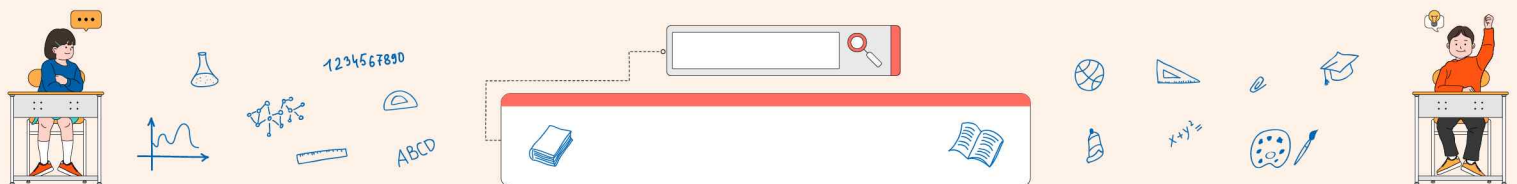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학습목표

- (1) 한국의 정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제도와 비정규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발전과정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해한다.
- (2) 교사, 재정, 여성의 측면에서 한국 학교 교육이 지닌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한국 학교 교육의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3) 사교육, 평준화,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한국 학교 교육의 직면한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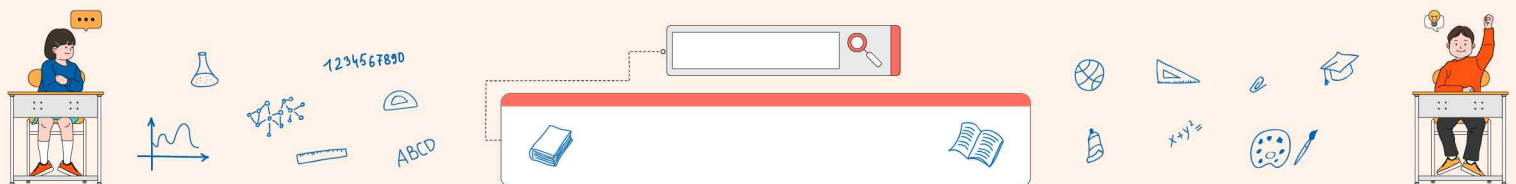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흔히 한국은 부족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이야기한다. 가난한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이 독립 후 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되었지만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데에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 강의에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가져온 한국 학교 교육의 경험을 주제별로 학습한다. 이 강의가 수강생들이 한국 학교 교육 성공 사례의 배경, 원인,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명암과 현재 남겨진 과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04

주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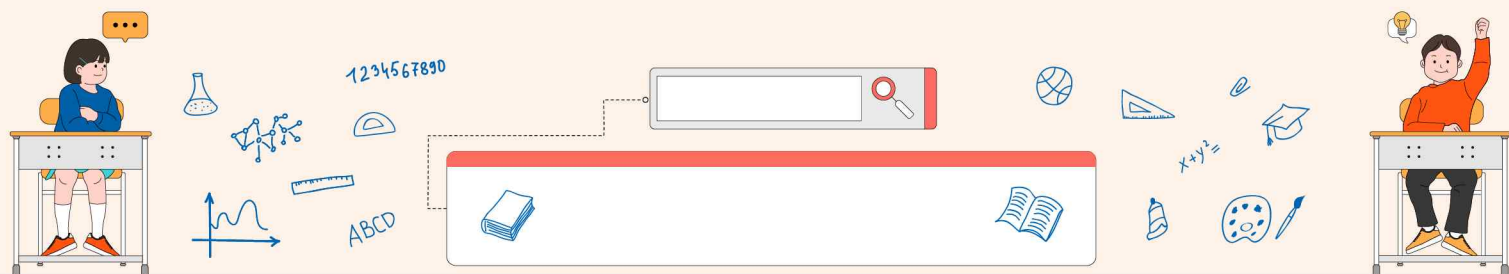
1주차	한국의 학교 교육
2주차	한국 학교교육의 형성
3주차	유아 및 초등교육
4주차	중등교육
5주차	고등교육
6주차	교원
7주차	교육재정
8주차	여성
9주차	사교육
10주차	학교 평준화
11주차	시험성적자료로 살펴본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12주차	학교 밖 학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4

주차

중등교육

4-1

식민지기 중등교육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한국 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중등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중등교육은 1960년대 이후로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산업 역군을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했었고, 이후에는 고등교육 팽창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선 식민지기의 중등교육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근대적 중등교육은 식민지기 이전부터 태동했습니다. 1899년 4월에 근대적 중학교 설치를 위한 중학교 관제가 공포되었고, 1900년에는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09년 기존 중학교의 명칭은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다시 고등보통학교로 바뀝니다. 고등보통학교에는 12세 이상의 남자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연한은 4년이었습니다.

사진은 경성고등보통학교의 과학 수업 시간 모습입니다. 식민지기의 현실에서 일부 조선인에 대한 중등교육은 상당한 수준의 엘리트 교육으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성고등보통학교는 식민지기 이전인 1900년 한국 최초의 공립 중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한성중학교의 후신으로 해방 이후에는 경기고등학교가 됩니다. 식민지기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 1970년대 중반까지 경성고등보통학교,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는 한국 최고의 명문 엘리트 학교로 이름을 날립니다.



여자들은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12세 이상으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하는 것은 고등보통학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연한은 3년으로 남학생 학교보다 1년이 짧았습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 1년씩 연장되어, 각각 5년과 4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과목도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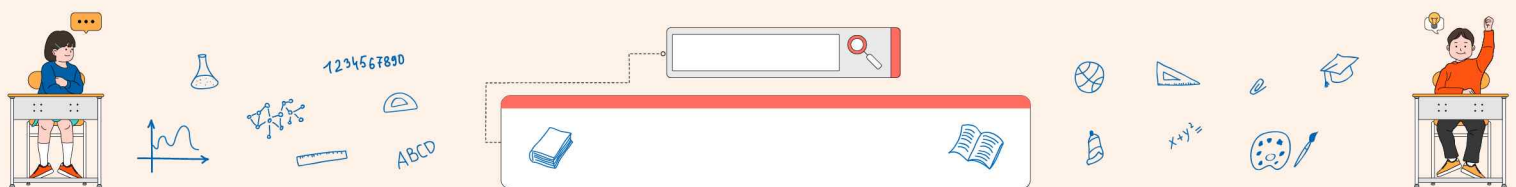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는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38년의 제3차 조선교육령은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명칭을 일본인 학교와 같게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 이후에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분리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로 불렸지만, 여전히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는 서로 구분되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1916년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장면입니다. 조선인 여학생들이 자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교육에는 일반적인 교과 이외에도 자수 수업 등 당시의 여성 교육관에 따른 별도의 교과목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실업교육을 위한 학교로 실업학교도 있었습니다. 실업학교는 처음에는 2년 내지 3년제 학교로 만들어졌는데,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에는 6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입학하여 3년 내지 5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년제 보통학교 졸업생을 위한 2년 과정의 실업보습학교도 있었습니다. 실업학교에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수산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1920년대에 당시 일본에서 임명한 조선 총독이 지금은 북한지역에 위치한 북청 공립농업학교를 시찰하는 사진입니다. 큰 규모의 근대식 2층 건물과 총독을 맞이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도열해 있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식민지기에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도 중등학교의 한 종류였습니다. 식민지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범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관립 고등보통학교와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 1년 과정의 사범과를 두고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했습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 5년제 사범학교가 중등과정으로 신설됩니다. 고등보통학교를 수료한 뒤 사범학교 연습과에 편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 아동 교육을 위한 소학교 교사 양성과정과 한국인 아동 교육을 위한 보통학교 교사 양성과정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에는 두 과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사진은 1940년대 청주사범학교 학생들의 수업 및 단체 사진입니다. 청주사범학교는 지금은 청주교육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중등교육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선 조선인 남학생들을 위한 고등보통학교부터 살펴봅시다. 식민지기 초인 1913년에는 단 3개의 고등보통학교만 있었습니다. 두 개가 공립, 하나는 사립이었습니다.

세 학교에 재적 중인 조선인 학생 수는 1,232명이었습니다. 학교당 400명 정도이고, 당시 수업연한이 4년이었으니 학년당 100명 정도였습니다. 같은 해 고등보통학교 교사가 65명이었으니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9명 수준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별히 선발된 또는 선택받은 소수 위주의 엘리트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보통학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에 선포되면서 중학교 체계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고등보통학교의 통계는 1937년까지만 존재합니다. 1937년의 고등보통학교는 27개교였고, 그중 11개교가 사립학교였습니다. 학생 수는 15,454명으로 늘어납니다.

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은 일본인 중학교와 달리 차등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일본인 학생이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보통학교에 재적 중인 일본인 학생도 175명 있었습니다. 1913년부터 1937년까지 고등보통학교는 학교 수에서나 학생 수에서 양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급 수준을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일본인 학교는 어떠했을까요? 일본인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의 경우 1913년에는 단 두 개의 학교만 있었습니다. 학생 수는 684명이었습니다. 1937년이 되면 16개교로 늘어납니다. 일본인 학생 수가 7,313명이었고, 조선인 학생 465명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 공학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부터는 고등보통학교도 중학교가 되고, 통계에서는 조선인 중학교와 일본인 중학교를 구분하지 않아 이후 확대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식민지 정부, 즉 총독부는 중등교육의 확대에 나섭니다.

1938년에는 총 50개의 중학교가 있었고, 그중 13개교가 사립학교였습니다. 1942년이 되면 중학교의 수는 71개교로 늘어나고, 사립학교의 수도 19개교로 늘어납니다. 사립학교는 거의 조선인 학교였습니다. 1942년의 중학교 제적생 수는 조선인 25,960명, 일본인 11,209명입니다. 1940년 국세조사, 즉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연령별 조선인과 일본인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령이었던 10세부터 14세까지의 조선인 남성 인구는 1,398,317명, 일본인 인구는 31,402명이었습니다. 대략 비교해 본다면 일본인 남성의 경우 학령인구의 삼분의 일이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조선인의 경우에는 남성 학령인구 중 중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 1913년에는 3개교에 291명의 조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일본인을 위한 고등여학교는 6개교였고, 일본인 학생 수는 946명이었습니다. 1937년이 되면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는 21개로 늘어납니다. 조선인 학생이 7,147명이었고 일본인 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해 고등여학교는 30개교였습니다.

일본인 학생 수는 11,337명이었고, 고등여학교에 재적중인 조선인 학생도 587명 있었습니다. 1938년부터는 고등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여자고등보통학교로 바뀌고 고등여학교 통계에 포함됩니다. 학교 수는 54개로 한 해 전 여자고등보통학교 수와 고등여학교 수를 합친 것보다 3개 많아집니다. 사립학교는 11개교였습니다.

1942년이 되면 고등여학교 수는 총 71개교로 늘어납니다. 여성 중등교육도 식민지기 말에 성장을 경험합니다. 사립학교가 12개였습니다. 일본인 학생 수가 15,339명으로 조선인 학생 수 14,313명보다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1940년 인구 기준으로 10세부터 13세까지의 여성 학령인구와 비교해 보면 일본 여성 학령인구의 고등여학교 취학률은 60% 이상이었지만, 조선 여성 학령인구의 고등여학교 취학률은 1.3% 수준으로 남성보다도 낮았습니다.



식민지기 실업학교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조선 제학교일람 자료에 따르면 1913년 실업학교 수는 17개교로 농업학교 14개교, 상업학교 3개교였습니다. 실업학교 학생 수는 1,471명이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수를 더한 규모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1942년이 되면 실업학교 수는 92개교로 증가합니다. 농업학교가 절반 이상인 49개교였고, 상업학교 30개교, 공업학교 9개교, 수산학교 4개교였습니다. 전체 학생 수도 24,530명으로 늘어납니다. 식민지기 초기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커졌지만, 여전히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조선인 학생 수를 합친 규모보다는 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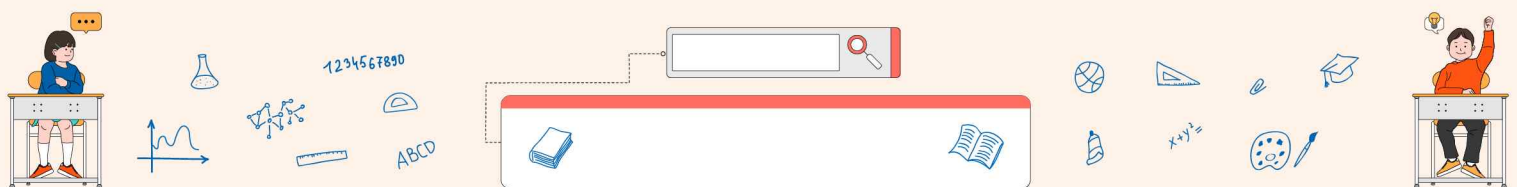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식민지기의 중등교육을 받고 나면 이후에 어떠한 진로를 택했을까요? 화면의 표는 임이랑의 2022년 연구논문에 정리되어있는 1927년 고등보통학교 졸업생들의 현황입니다. 전체 졸업생 수는 688명이었고, 그중 149명이 취업, 237명은 집에서 하는 일에 종사, 191명은 상급학교 진학, 4명은 사망, 기타 107명이었습니다.

상급학교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경성제국대학 예과 또는 여러 전문학교들, 일본의 구제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대학, 만주의 전문학교, 대학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률은 전체 평균 28%였고, 가장 명문학교로 이름을 날렸던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의 경우에는 35%로 더 높았습니다.

식민지기의 중등교육, 특히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육은 중등교육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세계 각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었던 일종의 엘리트 교육이었고,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며 엘리트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기 중등교육의 태동과 성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식민지기에는 근대식 중등교육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인문계 교육은 남성은 고등보통학교, 여성은 여자고등보통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가 분리되어 있다가 1938년부터 일본식으로 남자는 중학교, 여자는 고등여학교로 통합됩니다.

식민지기의 중등교육, 특히 남성의 고등보통학교 교육은 엘리트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학령인구의 2% 미만이 이 학교들에 진학했고, 졸업 후 상당수가 전문학교,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했습니다.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방 이후 중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

중등교육의 확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식민지기 중등교육의 태동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중등교육이 해방 이후 보편적으로 확산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기까지 중등교육은 엘리트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교육 기회도 제한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에서 중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성별 격차가 해소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령인구 대비 취학 인원의 비율, 즉 취학률은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에 보이는 취학률 추이는 한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확대 추이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학교 취학률은 50%에 달하는 1970년 무렵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이전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1979년에는 중학교 취학률이 90%를 넘어서고, 이듬해인 1980년에는 95%를 넘어섭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고등학교 취학률은 중학교 취학률 추이를 시차를 두고 따릅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2년에 30%를 넘어서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속도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6년에 80%를 넘어섰고, 1995년에 90%, 1999년에 95%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식민지기와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에도 중등교육으로의 진학은 치열한 경쟁을 치른 뒤 선발이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사회문제화되었고, 중학교는 1969년에 서울부터 무시험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입시 경쟁이 누그러집니다. 지역별로 연합고사를 실시해 전체 정원을 선발한 뒤 거주지 학군에 따라 임의 배정하면서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중등교육의 확대는 학교 공급을 늘리며 이루어졌습니다. 1962년 학령인구 천 명당 중학교는 0.69개, 고등학교는 0.43개였습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이 수치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학령인구 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학교 수도 함께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중등학교 공급 증가가 학령인구 증가보다 더 빨라집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 학령인구 천 명당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 수준이 됩니다. 이후 최근에는 다시 학령인구 천 명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식민지기에 중등교육은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고, 여성들의 교육 기회는 제한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처음에는 중등교육의 성별 격차가 상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됩니다. 중등교육의 확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학령기 인구에게 학교 교육의 공급을 늘리며 이루어졌고, 이는 성별 격차 해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 의무교육이 완성되어 가던 1958년 중학교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0.4명에 불과했습니다. 고등학교의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0.3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남녀 성비는 이후 꾸준히 개선됩니다. 중학교의 성비 개선이 고등학교보다 더 빨랐습니다. 1981년이 되면 중학교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0.9명을 넘어섭니다. 고등학교는 1992년이 되어야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꾸준히 0.9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초등교육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의 팽창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과밀학급을 경험하였습니다. 식민지기의 중등교육은 아직 엘리트 중심으로 한정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식민지기 고등보통학교도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1937년만 하더라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7명 수준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명대였습니다.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이후 1980년 45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한 요인도 있었지만, 학교의 공급과 교사의 채용을 꾸준히 늘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0년의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1명대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30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됩니다.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해서 교원 수도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중학교처럼 빠르게 감소했고 2000년 기준으로는 10여 명 수준이 되었습니다.

중등교육에서도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59년만 하더라도 중학교 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스무 명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중등교육은 단성교육, 즉 남학교와 여학교가 서로 분리된 경우가 많았고, 남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 교원의 비율은 이후 꾸준히 증가합니다. 1990년대에는 중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이 50%를 넘어섭니다. 이제 중학교 교원의 여성 비율은 70%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중 여성 비율은 최근에 5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중등교육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중등교육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은 크지 않고, 실제 학생들도 학군별 배정 원칙에 따라 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임의로 학교를 배정받아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중등교육 확대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책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9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사립 중등교육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오래된 사립 중고등학교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식민지기의 중등교육 성장은 공립학교 설립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만 하더라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율은 40%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등교육의 확대 초기 과정에서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보다 더 많이 설립되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율은 무시험 진학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1968년에는 45%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에는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립학교의 신설은 뜸해지고, 공립학교 설립을 통해 중등교육 확대가 진행되면서 사립학교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20% 이하, 고등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졸업생의 진로에 대한 통계자료는 1965년부터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각 연도 졸업생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졸업과 같은 해에 진학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입학에 위해 계속 준비중인, 즉 이른바 재수 중인 사람들은 진학을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대학 진학에서 재수생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진학률은 이 통계보다는 더 클 수 있겠습니다.

1965년 당시 중학교 졸업생의 70%가량이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중학교 취학률이 40%를 넘어서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령인구의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중등교육의 확대와 함께 고등학교 진학률도 증가했습니다. 1981년이 되면 전체 졸업생의 90% 이상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1987년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90% 이상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40% 수준이었습니다. 진학률의 성별 차이는 1970년대까지는 크지 않다가 1980년대에 다소 벌어집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 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했고, 2000년대에는 한때 이 수치가 80%를 넘어섰습니다.

대학 진학률의 증가는 고졸 취업률의 하락과도 관련됩니다. 1960년~1970년대 고졸 취업률은 20%~30%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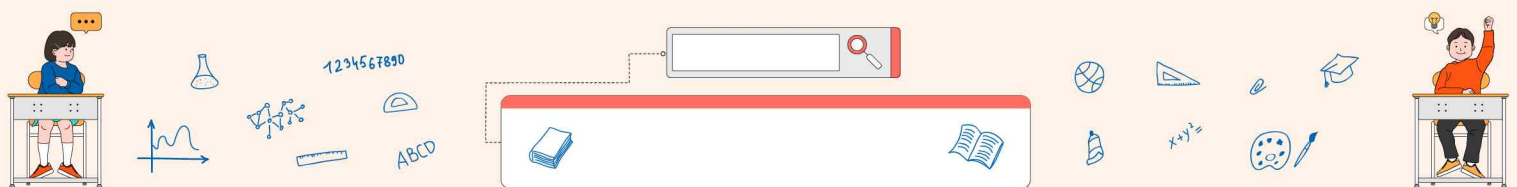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고졸 취업률은 1990년대부터 빠르게 감소했고, 2000년대 초에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013년 무렵에 고졸 취업률은 약간 늘었는데, 이는 당시의 고졸 취업 진흥정책과 관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중등교육의 보편적 확대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의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더 많이 세우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초기에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변화한 점도 중등교육 확대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중등과정 학교 교육이 충분히 확대된 이후에도 교원의 채용을 늘리며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교원 중 여성의 비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등교육에서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큰데, 이는 정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립학교를 중등교육 확대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4-3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중등교육의 보편적 확대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문계와 실업계는 이제 더이상 고등학교를 분류하는 공식적인 유형이 아닙니다.

2011년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이 형성되고 성장해 온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교육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2년 뒤인 1955년 한국에는 총 550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중 인문계가 311개교, 실업계가 249개교였습니다. 학급 수도 인문계 2,096개, 실업계 1,857개로 실업계가 더 적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확대되는데, 1968년이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많아집니다.

이때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당수는 실업계와 인문계가 혼재된 종합고등학교였는데, 1974년 고교 평준화 도입 후, 대도시 지역 종합고등학교의 상당수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1974년부터는 다시 인문계고등학교가 더 많아집니다. 이후 현재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는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1990년대 말부터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살펴보면 1989년까지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등락을 보입니다. 이는 인구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 아동 수가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출생연도 코호트 규모가 가장 컸던 이 세대가 고등학교를 거쳐간 시기가 바로 1980년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상으로는 이후 학생 수 감소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와 실업계 사이 진학 비율의 변동, 고교 진학을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실제로는 다소 변동이 보이게 됩니다.



1950년대 인문계 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여학생 비율은 40%를 넘어섰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성별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편 학생 중 사립학교를 다니는 비중은 1950년대부터 절반에 가까웠고, 이후 사립학교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1990년대 초에는 63%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주로 공립 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사립학교의 비율은 40% 대로 떨어졌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도 1980년대까지 비슷한 추세로 증가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1986년을 기점으로 잠시 감소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다시 증가해서 1997년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는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졸 취업률이 줄어듦, 고졸 학력과 대졸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1950년대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비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크게 남성 위주로 편중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여학생들의 진출이 늘었지만, 인문계 고교와 비슷한 수준의 남녀 성비에 이른 건 1980년 이후가 되어서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도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낮다가 1980년대에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한편 실업계 사립 고등학교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실업계 사립 고등학교 학생의 약 60%는 여학생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초창기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기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최종학력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각 연도별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 중 대학 및 전문대에 바로 진학한 비율은 40%가 약간 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조금 더 낮아서 4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대학 진학률보다는 낮다고 봐야 합니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취업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계속 준비하는 이른바 재수 또는 삼수생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문계 고교의 당해연도 대학 진학률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1990년대가 되면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 진학률보다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인문계 고교 당해연도 진학률은 2000년대 초 9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하면서 현재는 8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970년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이때에도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인문계 고교 자체가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고, 남학생들의 경우 취업 이전에 군복무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기술 진보와 경제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인문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점차 감소한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문계 고교 취업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설립된 만큼 과거에는 높은 취업률을 보여줬습니다. 1970년 50% 수준이던 취업률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초에는 8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졸자와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졸업 당해연도 취업률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2008년부터는 취업률이 2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실업계고 졸업생의 당해연도 취업률 하락은 대학 진학률 증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1970년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당해연도 대학 진학률은 남성 10%, 여성 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전문대 및 대학교 진학률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남녀 모두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졸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졸 및 대졸학력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고졸 취업률, 특히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하락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고등학교 체계의 개편과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이 그 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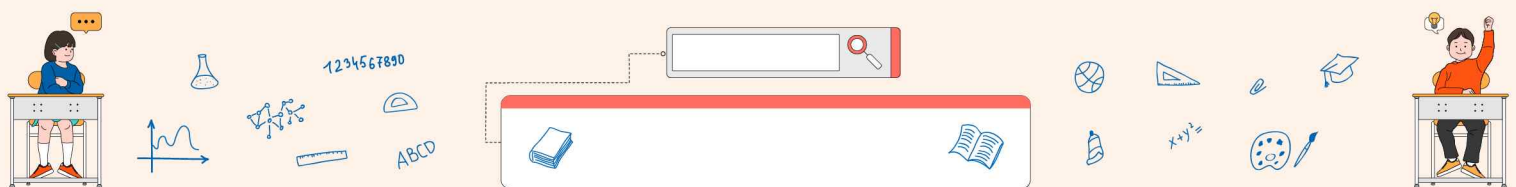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당시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후신으로 등장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10년부터 반등합니다. 2017년에는 50%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26%로, 2000년대 초에 나타났던 실업계고의 취업률 하락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나타났던 실업계고의 취업률 하락과 현재 특성화고의 취업률 하락을 비교해 보면 최근에는 진학률 수준도 예전보다 다소 낮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진학률은 하락했고, 이후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진학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특성화고 진학률은 50% 내외로,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 진학률보다 다소 높습니다. 2006년 실업계고 취업률이 26% 수준이었을 때, 진학률이 60% 내지 70%에 달했던 점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양적 변화를 2010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한국 후기中等교육의 팽창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후기 고등학교 교육이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을 위한 인문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전에 실업계였던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진 반면, 고교 취업률은 전문계 고교에서조차도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부터 정부에서는 고등학교의 체계를 개편하고, 특히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등 새롭게 일련의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2010년 이후 고등학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 최근 고등학교 정책 이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양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고등학교와 관련되어 펼쳐진 정책들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계고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 특히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급락하자 정부는 2010년부터 일련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정책들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조하며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등장하고 한동안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최근에는 특목고와 자율고 폐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 즉 후기 중등교육은 취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즉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는 1960년~197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정점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이 쇠퇴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졸 및 대졸 간 임금 격차가 빠르게 확대됩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배출 기능은 전문대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1년부터 고졸 채용 확대정책이 실시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을 늘려 전문계고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데에 정책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학력자만을 뽑는 할당제를 실시했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고졸 학력자를 채용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인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 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인정받는 산업기능요원 정원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선취업 후진학, 즉 고등학교 졸업 후 먼저 취업하고 이후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행되는 형식을 장려하였고, 특성화고에는 취업 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정희진과 고선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거 실업계였고,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8.7% 포인트, 즉 이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취업률이 증가한 만큼 대학 진학률은 감소하여,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이 전문계고 졸업생들로 하여금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다른 한 가지는 교육에서의 평등과 수월성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의 문제입니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제도가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된 이후로 고등학교 교육은 평등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서열화된 학교를 선택하는 대신, 학생들을 근거리 학교에 임의 배정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교원들에게는 동일한 급여체계하에서 여러 학교를 순환 근무하도록 했고,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었습니다. 학교 시설 투자도 교육청에서 주도하며, 학교 간 격차는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리 배정 제도하에서 거주지에 따른 교육의 차이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고, 서울에서도 아파트 개발과 함께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게 된 강남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동질적인 배경을 지닌 학생들로 학급 구성을 이루게 되며, 교육과 관련하여 선호되는 지역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원들 역시 근무지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고,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나누어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의견을 반영한 일련의 특수한 고등학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불리던 학교들인데, 원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실업계 학교 중 일부 또는 평준화 제도하에서 학생 배정이 어렵던 일부 학교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83년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공립 과학 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이 학교들은 1987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는 특별한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비슷한 시기인 1983년에는 대원 외국어학교, 1984년 대일 외국어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 이 학교들은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한 형태인 외국어 고등학교로 인가되었고, 이후 다수의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1993년에는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국제고등학교도 세워졌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161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28개교, 외국어고등학교가 30개교, 예술고등학교가 27개교, 체육고등학교가 17개교, 국제고등학교가 8개교입니다. 나머지 51개교는 전문계 학교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둘러싼 논쟁은 자율고등학교, 특히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깊어집니다. 2002년 정부는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학교들은 전국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일반 학교보다 더 비싼 수업료를 징수하는 대신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학교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 비용 부담도 더 컸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는 광역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여 자율 운영하는 자율성 사립 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부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대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은 이후 대학 진학이 성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모아 명문대학 또는 선호도와 경쟁이 높은 의과대학으로의 진학 성과를 두고 경쟁하는 학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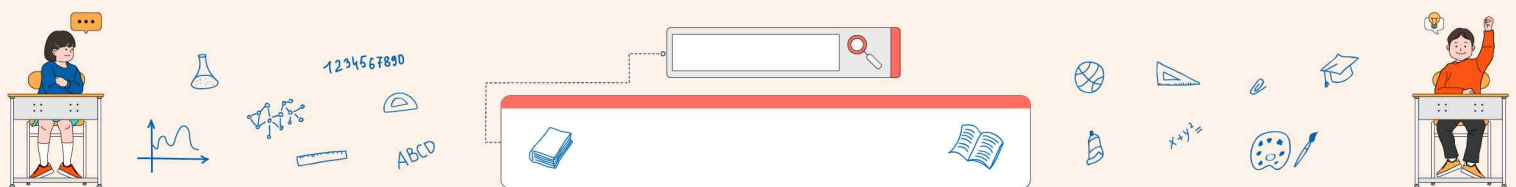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을 엘리트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른바 진보 교육감 및 진보 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러한 학교들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려는 정책이 펼쳐집니다.

학생 모집과 재정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자율형 사립고들이 스스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38개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있고, 그중 21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한편 2010년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도도 도입됩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면 재정지원과 함께 학교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반고등학교 역량 강화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정책 등이 펼쳐지며,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사이의 차이가 작아졌고,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역시 축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72개의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있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모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한 개의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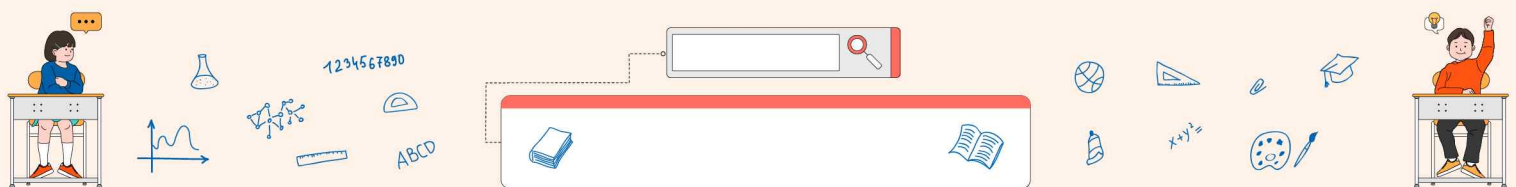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지금까지 2010년 이후 한국 고등학교를 둘러싼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감했고, 정부는 2010년부터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을 통해 전문계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책 대응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확대되고 2010년 이후로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등장하면서, 고교 교육에서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비싼 학비를 징수하며 명문대 진학에만 초점을 맞춘 엘리트 교육기관이 되었다는 비판 속에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위축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이 종종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등교육이 1960년~19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 중등교육과 한국 경제성장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2010년 이후 한국 고등학교를 둘러싼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중등교육이 1960년~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 성장과 어떻게 서로 연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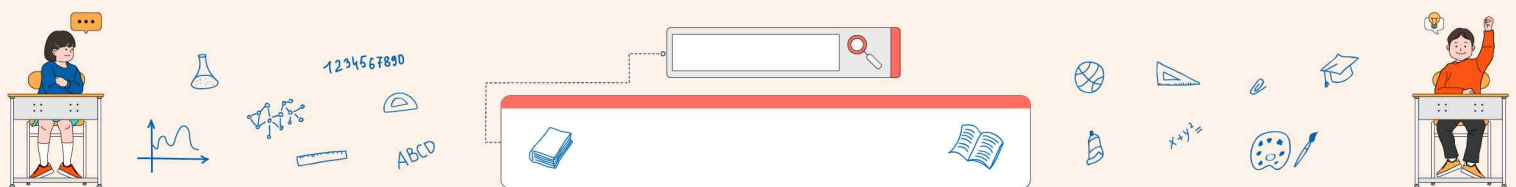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되는데,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공업고등학교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961년 280개였던 실업계 고등학교는 1980년에는 605개로 늘어납니다. 학생 수 역시 1961년 100,954명에서 1980년 764,187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팽창은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가 주도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업계 고등학교 중 농업고등학교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이 아직 농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가 급격히 증가한데 반해 1970년대부터 농업고등학교의 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현장의 전문 기술인력과 사업체 운영을 지원하는 경영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학교의 규모가 커지고 학급이 과밀화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 수가 전반적인 교육 팽창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상업고등학교의 빠른 팽창 못지않게 공업고등학교가 급속히 성장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1965년부터 1979년 사이 상업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4.22배 증가했지만, 공업고등학교 학생 수는 거의 다섯 배 늘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특히 상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 교육 팽창의 배경에는 높은 취업률이 있었습니다. 1965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업고등학교 취업률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농업 고등학교 취업률은 43%, 상업고등학교 취업률은 37%에 불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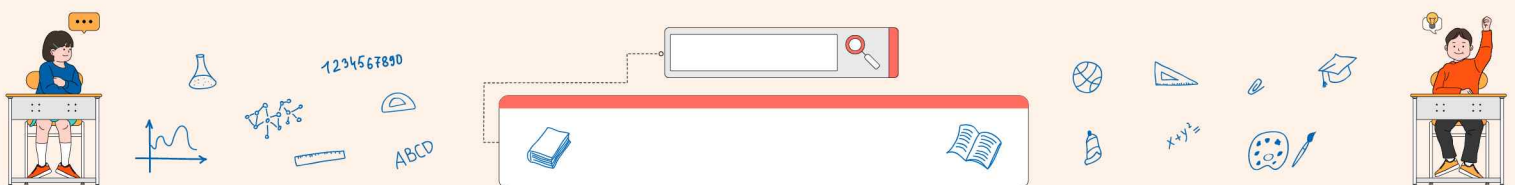
하지만 이후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의 취업률은 급속히 상승합니다. 1970년대 말이 되면 공업고등학교 취업률은 70% 이상, 상업고등학교 취업률은 60% 이상이 됩니다. 이후 공고, 상고, 농고 졸업생 취업률은 1990년 80%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1970년대에 정부는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기술인력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고, 이는 공업고등학교 팽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박영구의 연구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79년 사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중 약 70%가량이 공업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내자 538억 원과 외자 2,969만 달러가 공업고등학교 교육에 투자되었고, 합계액은 682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기능공 인력 양성을 위해 공업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당시 정부 정책은 이리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계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리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필요한 우수 기능인의 양성이었습니다. 우수한 학생의 유치를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되었고, 기숙사가 지원되었습니다.

박영구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개교 시기가 늦어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 운영비와 기숙사 공사 시설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업고등학교가 전국 각지에 설립되면서 기능인력 양성과 배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교육을 내실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박영구의 연구에 따르면 1977년에는 82개의 공업고등학교에 대해 총 87억 원의 시설비가 지원되었고, 1978년에는 역시 같은 수의 학교에 대해 98억 원의 시설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업고등학교의 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업고등학교에 실습용 선반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960년~1970년대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의 팽창, 특히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1970년대 공업고등학교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960년~1970년대에 한국경제가 산업화 및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기술 및 상업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에 맞추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특히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 교육이 크게 팽창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가 전개되었고, 기술인력 양성과 배출이 중요해집니다. 정부에서는 공업고등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이는 1970년대 공업고등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한국 교육> 네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 중등교육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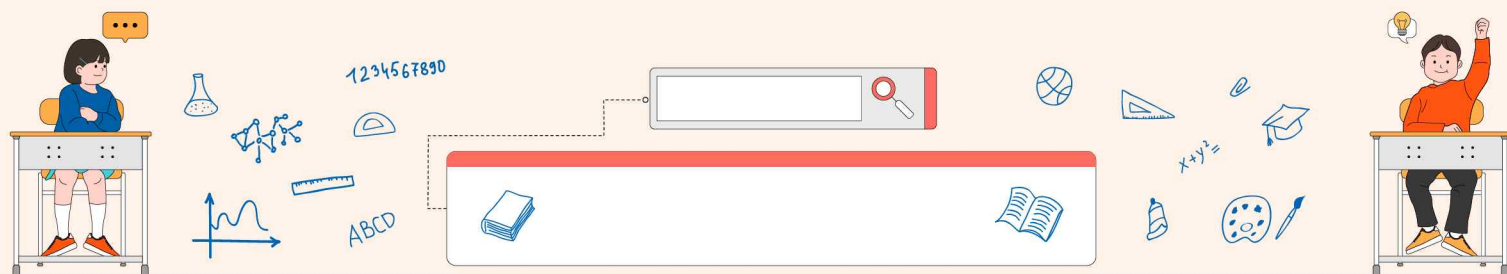
식민지기 중등교육의 태동, 1960년대 이후 중등교육의 확산,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변화 과정, 최근 고등학교 교육 관련 정책 이슈, 1960년~1970년대 실업계 고교 교육, 특히 공업고등학교 교육과 당시 경제 성장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4

Secondary Education

4-1

Secondary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My name is Go Sun. In this section, I will look at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has expanded since the 1960s, and it nurtured industrial forces while the Korean economy grew rapidly. It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higher education. Above all, I will look at secondary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Korea's modern secondary education began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April 1899, the middle school ordinance was promulg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modern middle schools. In 1900, Hanseong Middle School was established. In 1909, the name of the existing middle school was changed to a high school. After Korea became a colony of Japan, it was changed to an advanced general school. Males over the age of 12 who had graduated from a four-year general school could enter advanced general school. The term of study was four years.

The photo shows the science class at Gyeongseong Advanced General School. We can see that secondary education for some Koreans during the colonial era was conducted at a considerable level of elite education. Gyeongseong Advanced General School is the successor to Hanseong Middle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public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 in Korea in 1900, before the colonial era. After the liberation, it became Gyeonggi High School. From the colonial era to the mid-1970s when high school standardization was implemented, Gyeongseong Advanced General School and Gyeonggi High School were renowned a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and elite schools in Korea.



Female students could go on to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girls. Like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boys, female students over the age of 12 who graduated from a four-year general school could enter this school. However, the term of study was three years, which was one year shorter than that of boys' schools. After the Second Korean Education Ordinance in 1922, the term of study in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boys and girls was extended by one year, to five years and four years, respectively. The Korean language was also included as a compulsory subject.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boys and girls were schools for Korean students. Japanese students were educated in middle schools and advanced schools for girls. The Third Korean Education Ordinance in 1938 changed the names of advanced general schools to middle schools and advanced schools for girls, just like Japanese schools. However, even after the name change, the separate educa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Although the name was the same, schools for Koreans and schools for Japanese were still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 picture on the screen is a class scene at an advanced general school for girls in 1916. In this picture, Korean female students take an embroidery class. For women's education, in addition to general subjects, separate subjects such as embroidery classe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women's education view at the time.

There was also a vocational school for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schools were initially created as two- or three-year schools. After the Second Korean Education Ordinance, students, who graduated from a six-year general school before entering vocational school, received vocational education for three to five years. There was also a two-year vocational complementary school for graduates of four-year general schools. Vocational schools included agricultural schools, commercial schools, industrial schools, and fisheries schools.



The photo shows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appointed by Japan in the 1920s, inspecting Bukcheong Public Agricultural School located in North Korea. You can see a large modern two-story building and students in uniforms lined up to greet the govern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 normal school to train primary school teachers was a type of secondary school. Even in the early colonial era, there were no separate normal schools. The government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boys and girls had a one-year curriculum to nurture primary school teachers.

After the Second Korean Education Ordinance in 1922, a five-year normal school was newly established as a secondary education course. Students who completed advanced general school were able to transfer to the training course of normal school. In the beginning, the grade school teacher training course for Japanese children's education and the general school teacher training course for Korean children's education were operated separately. However, after the Third Education Ordinance in 1938, the two courses were integrated into one.

The photo is a class scene of Cheongju Normal School students in the 1940s. Cheongju Normal School is now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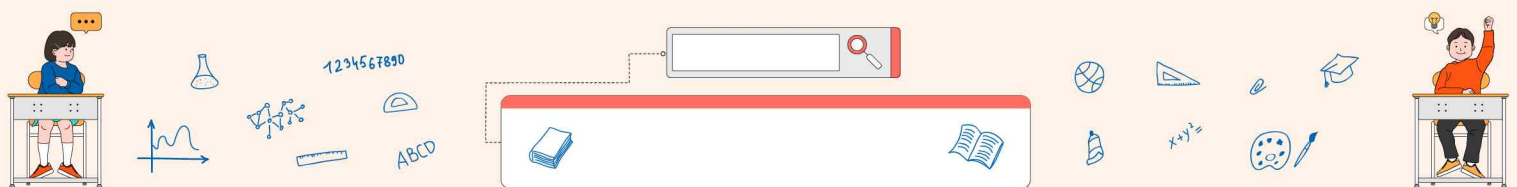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Then, what was the scale of secondary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irst of all, I will look at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Korean male students. In 1913, at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 were only three advanced general schools. Two were public and one was private.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enrolled in the three schools was 1,232. There were about 400 students per school, and since the class period was four years at the time, there were about 100 students per grade. In the same year, there were 65 teachers at these schools, so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was 19. I think it was not a universal education for everyone, but an elite education centered on a specially selected few.

Advanced general schools were integrated into the middle school system when the Third Korean Education Ordinance was proclaimed in 1938. Therefore, the statistical data of advanced general schools were only recorded until 1937. In 1937, there were 27 advanced general schools, 11 of which were private.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to 15,454. The curriculum of advanced general schools wa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middle schools for Japanese students. However, Japanese students could attend advanced general schools. So, 175 Japanese students were enrolled in the schools. From 1913 to 1937, advanced general schools experienced a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s and students. However, it was still very small in terms of secondary education generalization.

What was secondary education like for Japanese students? There were only two middle schools, and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for Japanese students, in 1913. The number of students was 684. By 1937, the number of schools increased to 16. The number of Japanese students was 7,313, and 465 Korean students also attended middle school. In principle, Koreans and Japanese were allowed to study together. From 1938, the advanced general school became the middle school. Statistics do not distinguish between Korean middle schools and Japanese middle schools. So, it has been a bit difficult to pinpoint the expansion trend since then. And from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egan to expand secondary education.



In 1938, there were a total of 50 middle schools, 13 of which were private. In 1942, the number of middle schools increased to 71. The number of private middle schools also increased to 19. Private schools were mostly composed of schools for Korean students. In 1942, the number of middle school students was 25,960 Koreans and 11,209 Japanese. Using the data from the 1940 national census, we can find the number of Koreans and Japanese by age.

The Korean male population aged between 10 and 14, which is middle school age, was 1,398,317, and the Japanese population was 31,402. For Japanese males, one-third of the school-aged population attended middle school. For Koreans, less than 2% of the male school-aged population attended middle school.

For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girls, there were 291 Korean students in three schools in 1913. In the same year, there were six advanced schools for girls, which are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for Japanese female students, with several 946 students. In 1937, the number of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girls increased to 21. There were 7,147 Korean students and one Japanese student. In the same year, there were 30 advanced schools for girls.

There were 11,337 Japanese students and 587 Korean students. From 1938, like the advanced general school for boys, it became the advanced school for girls and was included in the statistics of advanced schools for girls. The number of schools was 54, three more than the number of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girls and advanced schools for girls last year. There were 11 private schools.



In 1942 the total number of advanced schools for girls increased to 71. Secondary education for women also experienced growth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 were 12 private schools. The number of Japanese students was 13,338, still more than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14,313). Compared to the female school-age population aged 10 to 13 as of 1940, the enrollment rate of Japanese students of school age was over 60%. However, the enrollment rate of Korean female students at the school age was 1.3%, lower than that of Korean male students.

The situation in the colonial vocational schools was similar. According to the list of schools in Korea, the number of vocational schools in 1913 was 17, including 14 agricultural schools and 3 commercial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s at the vocational schools was 1,471. It was slightly smaller than the sum of the students at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boys and girls.

In 1942 the number of vocational schools increased to 92. There were 49 agricultural schools, 30 commercial schools, 9 industrial schools, and 4 fisheries schools.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also increased to 24,530. Compared to the early colonial era, the volume became considerably larger. However, it was still smaller than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in middle schools and advanced schools for gir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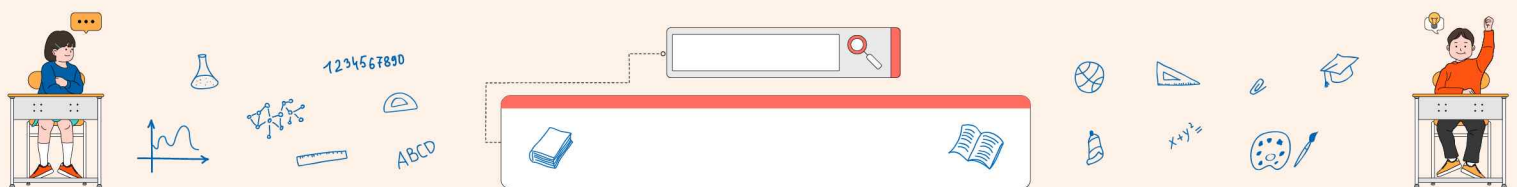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During the colonial era, what kind of career did students who received secondary education choose? This table shows the status of graduates from advanced general schools, which is summarized in Lim I Rang (2022). The total number of graduates was 688. Among them, 149 graduates were employed, 237 graduates worked at home, 191 graduates went on to higher education, 4 graduates died, and 107 graduates did other things.



The upper-level schools were diverse, such as the preparatory course of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or various vocational schools in Korea, higher schools or vocational schools in Japan, and vocational schools and junior colleges in Manchuria. The average entrance rate to upper-level schools was 28%. Gyeongseong Jeil High School, which was known as the most prestigious school, had a higher entrance rate of 35%. In the colonial era, secondary education, incredibly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boys and girls, was a kind of elite education, which could be commonly observed in various countries before secondary education became universal. In other words, at that time, secondary education played a role in nurturing elites in connection with higher education.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birth and growth of secondary education in the colonial era. During the colonial era, the system of modern secondary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earnest. Academic educ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boys and girls. Korean schools and Japanese schools were separated, but in 1938 they were integrated into a middle school for boys and an advanced school.

Secondary education in the colonial era, especially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boy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ducing elites. Less than 2% of the school-aged population went on to these schools, and after graduation, a significant number went 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vocational schools and junior colleges. Vocational education was provided through vocational schools. Next time, I will look at the universal spread of secondary education after the liberation. Thank you.



4-2 Spread of Secondary Education

Hello, everyone! Last time, I looked at the birth and growth of secondary educ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time, I will examine how secondary education has achieved universal spread since the liberation.

Until the colonial era, secondary education was limited to elite education. Women's educational opportunities were also limited. I will find out when secondary education became universal and the gender gap was resolved in Korea. And I will examine the backgrou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compared to the school-age population, that is, the school enrollment rate shows a steady increase. The trend in the enrollment rates in this graph shows that the expansion of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 education has been similar with a certain time difference.

The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 in red color increased moderately until around 1970, when it reached 50%, and then grew faster than before. In 1979, the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 exceeded 90%, and in 1980, it exceeded 95%.

The high school enrollment rate in blue follows the trend of the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 with a time difference. The high school enrollment rate exceeded 30% in 1972 and began to increase at a rapid pace by the mid-1980s. After the mid-1980s, the pace slowed, but it still grew steadily. The high school enrollment rate exceeded 80% in 1986, increased to 90% in 1995, and over 95% in 1999.

Lik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fter the liberation, students could go on to secondary education schools only after fierce competition and selection. Excessive competition in entrance exams became a social problem, and the no-exam system for middle schools began in Seoul in 1969.



For high schools, the standardiza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Seoul and Busan in 1974, and competition in the entrance exam eased. Then, the joint examination was conducted by region to select the entire quota, and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according to the school district of their residence. Thus, the competition to enter prestigious high schools has disappeared.

Given the high demand for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the expansion of secondary education has been driven by increasing school supply. In 1962, there were 0.69 middle schools and 0.43 high schools per 1,000 students. Over the next 10 years, this figure hasn't changed much. This means that the number of school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Since the mid-1970s, secondary school supply growth has outpaced the school-age population growth.

In the 2000s, there were 1.5 middle schools and 1.1 high schools per 1,000 students. Recently, the number of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per 1,000 students has increased again. This is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econdary education was dominated by men,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women were limited. After the liberation, the situation was similar. Even after the liberation, the gender gap in secondary education was significant at first, but it became narrowed over time. Secondary education was successfully expanded by increasing the supply of school education to the school-age population who did not attend school. The process of reducing the gender gap also followed a similar path.



In 1958, when compulsory elementary education was completed, there were only 0.4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in middle school.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in high school was less than 0.3. However, the male-to-female ratio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ontinued to improve steadily thereafter. The gender ratio in middle school improved faster than in high school. In 1981,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in middle school exceeded 0.9. It wasn't until 1992 that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er male in high school exceeded 0.9.

As with primary educatio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experienced overcrowded classes during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in the colonial era was limited to elite education. So,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was not so large. Advanced general schools during the colonial era also experience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But even in 1937, there were only 27 students per teacher.

In the late 1950s,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 middle and high schools was 30.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 middle schools rose to 45 in 1980 and then declined steadily. This was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s well as an improvement in school education quality by steadily increasing the supply of schools and teachers. In 2020, the number of students per middle school teacher was 11.

For high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remained around 30 from the late 1950s to the late 1980s. This was because the number of teachers also increased rapidly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Since then, the number of students per high school teacher has declined as rapidly as in middle schools. As of 2000, the number was about 10.



Even in secondary education, the proportion of female teachers has steadily increased. In 1959, only 10% of middle school teachers were women. And 20% of high school teachers were women. In secondary education, there were many cases of single-sex education. Teachers in boys' schools were almost m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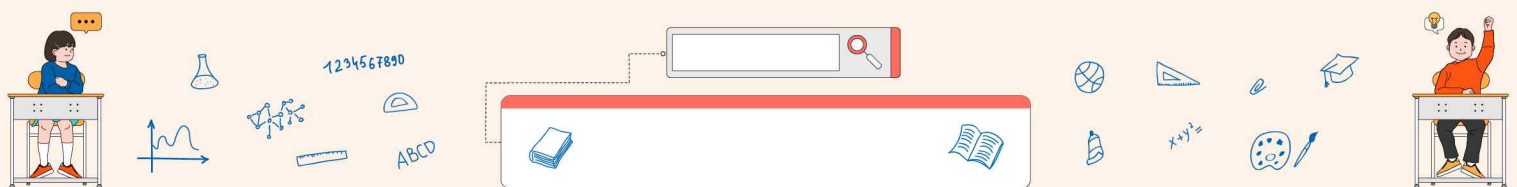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The proportion of female teacher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n. In the 1990s, the ratio of women in middle school teachers exceeded 50%. Now, the ratio of female middle school teachers is around 70%. The ratio of female high school teachers has recently exceeded 50%.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is the larg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in secondary education is not large. Stu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school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according to their school district.

This education system has been formed as a result of the policy that actively utilized private school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secondary education. Since 1969, the no-entry exam system for middle school has been implemented, and in 1974,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began. To maintain them, the government subsidizes labor and operating costs for private secondary education schools.

The history of some old private and high schools dates back to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e growth of second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was mainly driven by public schools. So even in 1953,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e ratio of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was less than 40%.

However, in the early process of expanding secondary education, private schools began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more private schools were established than public schools. In 1968, before the start of the no-entry exam system, the ratio of private middle schools rose to more than 45%.



In the early 1980s, more than half of high schools were private. However, since then, private schools have been rarely established while public schools have been actively built by the government to expand secondary education based on private schools. So, the private school rate is steadily declining. Recently the private school share of middle schools has fallen below 20%, and the share of high schools has been under 40%.

This is the data on the statistics on the career paths of graduates that have been compiled since 1965. This data shows the ratio of graduates each year who went on to upper secondary school or found jobs. Therefore, the repeaters, who did not succeed in entering higher education in the same year of graduation, ar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enrollment rate. Given that the rate of repeat students in Korean university admissions is significant, the university entrance rate may be higher than this data.

In 1965, about 70% of middle school graduates went on to high school. It was a time when the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 had just exceeded 40%, and the ratio of students entering high school was less than 30%. Along with the expansion of secondary education, the high school enrollment rate has also increased. In 1981, more than 90% of all middle school graduates went on to high school. In 1987, more than 90% of female middle school graduates went on to high school.

The university enrollment rate was around 40% until the early 1990s. The gender gap in the university enrollment rate has not been large until the 1980s, but it widened in the 1980s. Since the mid-1990s, the university enrollment rate has increased rapidly. At one point in the 2000s, this rate exceeded 80%.



The increased university enrollment rate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for high school graduates. Between 1960 and 1970, the employment rate for high school graduates was 20% to 30%. Of course, the rate was different between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I will separately examine employment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later.

The employment rate for high school graduates has declined rapidly since the 1990s and fell below 10% in the early 2000s. Around 2013, the employment rate increased slightly. This was due to the high school graduate employment promotion policy at that time.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process of universal expans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has expan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more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The process of expanding secondary education also sought to provide women with equal access to secondary education, which was initially male-dominated. Even after secondary school education was sufficiently expanded, various efforts were made to increas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teachers. As a result,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has been steadily declining.

The ratio of women among teachers continues to grow. Private school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labor and operating costs and actively utilizing private school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secondary education. Next time, I will focus on high schools and examine each of the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4-3 Academic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Hello, everyone! Last time, I examined the process of universal expans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This time, I will focus on high schools and examine each of the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are no longer an official type of high school classification.

Since 2011, Korea has divided high schools into general high schools, special-purpose high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autonomous high schools. However, it is also meaningful to examine the academic high schools that aim to go on to university and the vocational high schools that focus on fostering industrial manpower through technical education. In 1955, two years after the Korean War, there were 550 high schools in Korea. Among them, there were 311 academic high schools and 249 vocational high schools. Academic high schools had 2,096 classes and vocational high schools had 1,857 classes, which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n, the number of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increased. In 1968, the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s exceeded the number of academic high schools. At that time, most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comprehensive high schools with a mix of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system in 1974, many comprehensive high schools in major cities became academic high schools. So, in 1974, there were more academic high schools. Since then, the number of academic high schools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s has increased moderately but decreased somewhat since the late 1990s.

We can see the number of academic high schools rapidly increased until 1989. Since then, the number of academic high schools has fluctuated. It is related to the demographic structure.



The number of children born in Korea began to decline in the early 1970s. It was in the late 1980s that the generation with the largest birth cohort went on to high school. So, considering the demographic structure, it is natural for the number of students to decrease afterward. However,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academic high school enrollment rate, you can see some variation.

In the 1950s, the ratio of female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was only 30%. However, in the mid-1960s, the ratio exceeded 40%. Since then, it has steadily increased, and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The proportion of students attending private schools has been close to half since the 1950s. Then, the proportion rose to 63% with more private schools in the early 1990s. However, since then, many public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proportion has fallen to 40%.

The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lso increased at a similar rate through the 1980s. The number has declined for a while since 1986. And the number increased again in the early 1990s and peaked in 1997. Since then, it has been declining rapidly. This trend is the result of a de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due to economic growth,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a widening wage gap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Until the 1950s, the gender ratio of vocational high schools was more male-dominated than that of academic high schools. Since then,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entering vocational high schools has increased. It wasn't until after 1980 that the gender ratio reached a level similar to that of academic high schools.

The ratio of private school students among vocational high schools was lower than that of academic high schools but it reached a similar level in the 1980s.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s are characterized by a higher proportion of female students. Since the late 1970s, about 60% of students in vocational private high schools have been female students.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female commercial high schools among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early days, academic high schools were institutions that prepared students to go on to college, but they were also the final institution of academic achievement. In each year of the 1960s and 1970s, just over 40% of male graduates from academic high schools went on to ju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Less than 40% of female graduates entered ju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This figure should be lower than the actual college entrance rate. This is simply because the figure does not include repeaters who do not get a job and continue to prepare for college entrance exams.

The college entrance rate of academic high schools in the same year began to rise in earnest from the 1980s. In 1990, the college entrance rate for female students became higher than that for male students. In the early 2000s, the enrollment rate of academic high schools exceeded 90%. Since then, it has declined and is now showing around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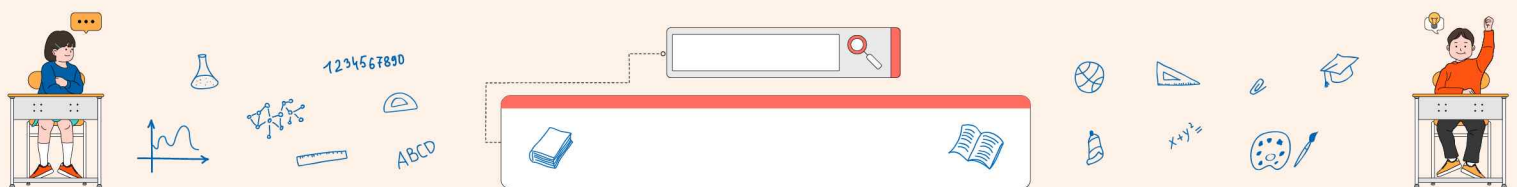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The employment rate for academic high schools has been shown since 1970, indicating that it was only 10%. This is because academic high schools are institutions for entering higher education, and male students are requir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before getting a job.

Technological progress,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structure advancement have also contributed to a gradual decline in labor market demand for these graduates. Since the mid-1990s, the employment rate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has been declining. Currently, it is meaninglessly low.



Since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established to produce professionals, they showed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past. The employment rate, which was 50% in 1970,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n, reaching 80% in the early 1990s. However, since then, jobs for high school graduates have decreased and the wage gap with college graduates has widened. In this regard, the employ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year rapidly declined. Since 2008, the employment rate has fallen below 20%.

The decline in the employment rate in the year of graduation is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college entrance rate. In 1970, only 10% of male students and 7% of female students went on to college in the year of graduation. However, the college entrance rate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1990s. In 2008, 70% of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went on to ju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This was because the number of jobs for high school graduates decreased as a result of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widening wage gap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At that time,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decline in the employment rate as a social problem. So, the government introduced policies to respond to it. For example,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of reforming the high school system and expanding the recruit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I will look at this policy in more detail in the next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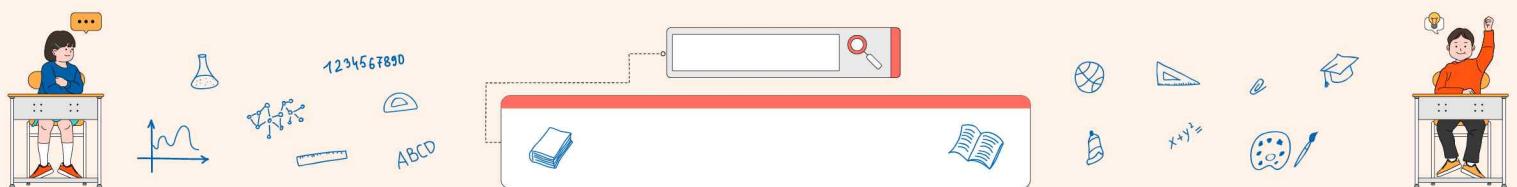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At that time, this government policy had some effect. Specialized high schools emerged as successors to vocational high schools after the high school system was reorganized, and their employment rate rebounded in 2010. In 2016, the employment rate increased to 50%. But since then, it has plummeted again. In 2021, the employment rate was 26%. This was almost similar to the decline in the employ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early 2000s.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decline in the employ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early 2000s and the current decline in that of specialized high schools. In other word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llege entrance rate of specialized high schools is somewhat lower than before. As the employment rate of specialized high schools increased, the college enrollment rate decreased. Since then, the employment rate has fallen, while the enrollment rate has risen again.

The college enrollment rate of specialized high schools in 2022 was around 50%, and the rate of female students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Compared to 2006 when the employment rate was 26% and the college enrollment rate reached 60% to 70%, this figure is relatively low.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quantitative changes in Korean high school education up to 2010, divided into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Both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panding upper-secondary education in Korea. Recently, upper secondary education has been reorganized, focusing on academic high schools for advancement to higher education. The number of specialized high schools, previously vocational high schools is currently reducing.



This is because the overall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has increased, while the employment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in particula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has declined significantly. As mentioned earlier, since 2010, the government has reorganized the high school system.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nducted a series of new policies, such as encouraging the hiring of high school graduates. Next time, I will take a close look at the changes in high school policies since 2010. Thank you.



4-4 Recent High School Policy Issues

Hello, everyone! Last time, I looked at the quantitative changes in Korean high school education, divided into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This time, I will take a look at two major issues related to current high school policies.

The first is a policy related to vocational high schools. As the employment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especially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has plummeted,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 series of high school graduate employment expansion policies since 2010. First, I will examine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se policies.

Second, I will explain policies surrounding diversity and excellence in high school education. Since 2000, special-purpose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have emerged and expanded for a while, emphasizing the diversity and excellence of high school education. However, there are also criticisms of these schools. Recently, some have argued for the abolition of these schools.

First, I examine the high school graduate recruitment expansion policy.

In Korea, high school education, that is, upper secondary education, has been divided into vocational high schools that nurture professionals and academic high schools that prepare for higher education. Between 1960 and 1970, vocational high schoo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upplying professional manpower to suppor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starting in the 1990s,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declined, and the employ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dropped sharply. With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industrial structure was advanced, and the wage gap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rapidly widened. Further, the role of producing professional manpower was transferred to junior colleges.

To respond to these situations, high school graduate employment expans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1. These policies aim to support vocational high schools by increasing the supply of jobs for such school graduates. First of all, publ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implemented a quota system in which only high school graduates were selected. The government provided tax benefits to private companies hiring high school graduates. The government also gave preference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iring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by recognizing them for fulfilling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 government also encouraged the way of getting a job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then entering college while working there. The government has expanded and assigned employment support professionals to specialized high schools.

According to a study by Jung Hee Jin and Go Sun, these policies have produced meaningful results. The employ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specialized and meister high schools) increased by 8.7 percentage points or 36%.

This effect was greater for men than for women. As the employment rate increased, the college enrollment rate decreased. These policies had the effect of making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choose employment instead of entering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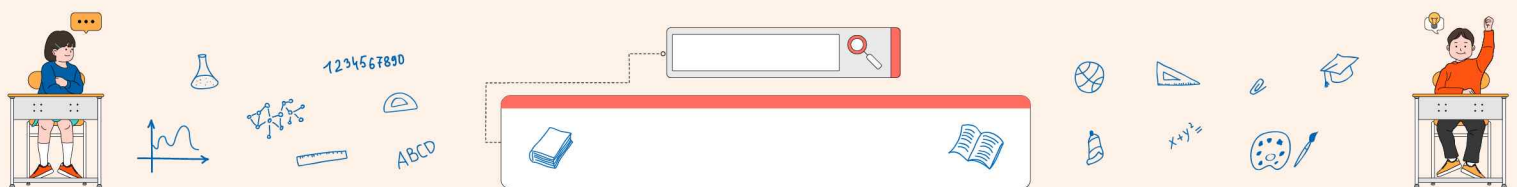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Another controversial aspect of high school education in Korea i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equal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Since 1974 when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Seoul and Busan, high school education has evolved in a way that focuses on equality.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to local schools according to their school district instead of selecting rank schools. Public school teachers were rotated between different schools under the same payment system. The personnel expenses of private school teachers were subsidiz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Investment in school facilities was also l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so the gap between schools was not large.

However, under the short-distance student placement system, there was also a problem of differences in education by residenc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large cities and rural areas. In Seoul,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partments, the Gangnam area, where office workers and professionals mainly live, attracted a large number of students with relatively excellent academic performance. So, this area became a preferred area in terms of education. Teachers were also able to choose their place of work. There was a distinction between the schools teachers preferred and the schools that they did not prefer.



Against this backdrop, a series of special high schools emerged that reflected opinions emphasizing excellence in education. They were special-purpose high schools. Originally, special-purpose high school was a term to refer to some vocational schools or schools where it was difficult to assign students under the standardization system. As the need for gifted education was raised, public science high schools began to be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starting with Gyeonggi Science High School in 1983. These schools were chartered as special-purpose high schools in 1987. From this year, special-purpose high school became a term that refers to a special high school in charge of excellence in education. Daewon Foreign Language School was established in 1983 and Daeil Foreign Language School was established in 1984. These schools, which focused 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ere initially miscellaneous schools that did not recognize high school graduation. However, since 1992, they have been approved a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in the form of special-purpose high schools. Since then, many privat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There are also some public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In 1993, arts high schools and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were established as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In 1998, international high schools were also establ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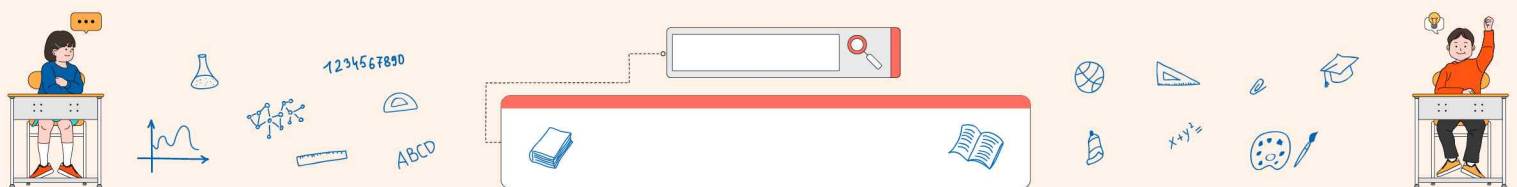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As of 2021, there are 161 special-purpose high schools in Korea. There are 28 science high schools, 30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27 arts high schools, 17 physical education schools and eight international high schools. The remaining 51 schools are meister high schools (vocational high schools) that operate curriculum tailored to industrial demand.



The debate over excellence and diversity in high school education deepened with the advent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In 2002, the government introduced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to diversify high school education and enhanc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in managing schools and curricula. These schools autonomously select students nationwide and collect higher tuition than general schools. So, they are given some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schools and curricula. The burden of the mandatory cost of transferring from the educational foundation to the school is also greater. Since 2009,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has been introduced. Students are selected and operated autonomously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ince 2011,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s have been integrated into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usually select excellent students and conduct education emphasizing excellence. However, in Korea, high school education is considered an achievement to enter college. So, it is often regarded that these schools just make students with excellent grades who can afford expensive tuition compete with each other to advance to prestigious universities or medical schools. Those who criticized this education as elite education argued for the abolition of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Progressive superintendents and progressive politicians came to power and they tried to reduce and in turn abolish these schools.

In some cases,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that had difficulties in recruiting students and receiving financial support became regular high schools. As of 2021, there are 28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in Korea, 21 of which are in Seoul.



In 2010, an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to support public high schools in areas with poor educational conditions.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designated by city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can autonomously operate schools and curricula along with financial support. The goal was to improve the educational capacity of such schools to narrow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or classes. However, since then, polici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general high schools and to expand the autonomy of the school curriculum have been implemented. These policies aimed to narrow the gap between general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Further, a plan was made to gradually introduc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2025. So,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are also on the decline. As of 2021, there were 72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in Korea. In Seoul, all of them have already been converted into general high schools, so there is no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So far, I have summarized two issues surrounding Korean high school since 2010. The first issue was about support for vocational high schools.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environment, the employment rate in vocational high schools has plummeted. Since 2010,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vocational high schools through the employment expansion policy for their graduates. Several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nd they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of some students graduating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However, more discussion is needed on what policy response will be desirable in the face of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ince the 2000s, the number of special-purpose high schools has expanded, such as science high school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international high schools. Further, since 2010,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have appeared. So, controversy arose over opinions emphasizing excellence and diversity in high school education. Some criticized these schools for collecting high tuition fees and making education an elite educational institution focusing only on entering prestigious universities. In particular,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re this criticism. Others argue that students should be able to choose a variety of education instead of a uniform education. Further, the argument that excellence in education for excellent students is needed is also steadily gaining strength. So,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or presidential election, which determine education policy, the direction of related policies often changes significantly. Next time, I will look at how secondary education had an impact on Korea's economic growth in the 1960s and 1970s. Thank you.



4-5**Korea's Secondary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Hello, everyone! Last time, I examined two issues surrounding Korea's high schools since 2010. This time, I will examine how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impacted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1960s and 1970s.

In Korea, industrialization took place in the 1960s and 1970s, and the demand for technical personnel increased rapidly. Further, professional education to nurture technical manpower expanded. This led to an increase in vocational high schools, especially technical high schools.

As we saw earlier, the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creased from 280 in 1961 to 605 in 1980. The number of students also increased from 100,954 in 1961 to 764,187 in 1980. This expans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was led by technical high schools and commercial high schools.

Until the mid-1960s, the number of agricultural high schools was the largest among vocational high schools. This is because Korea's main industry was still agriculture. However, while commercial high schools and technical high schools increased rapidly, the number of agricultural high school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the 1970s. This is because the demand for professional technical manpower and business manpower has greatly increased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1960s and 1970s were a time when schools grew in size and classes became overcrowded. Thus, the number of schools does not represent all of the overall educational expansion. Looking at the number of students, we can find that technical high schools have grown as rapidly as commercial high schools. Between 1965 and 1979, the number of commercial high school students increased by about 4.22 times. The number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has increased by almost five times. In the case of agricultural high schools, despit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s remained at a similar level.



The background to the expans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especially commercial and technical high schools, was the high employment rate. Until 1965, the employment rate in technical high schools was slightly over 50%. The employment rate for agricultural high schools was 43%, and the rate for commercial high schools was only 37%.

However, the employment rate for technical and commercial high schools rose rapidly. By the end of the 1970s, the employment rate for technical high schools reached over 70% and the rate for commercial high schools was over 60%. Then, the employment rate of technical high schools, commercial high schools, and agricultural high schools rose to 80% in 1990. In the 1970s, the government actively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manpower for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This became the background of the expansion of technical high schools. According to a study by Park Young Goo, about 70%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vocational education between 1973 and 1979 was used for technical high school education. 53.8 billion won in domestic capital and 29.69 million dollars in foreign capital were invested in technical high school education. The total amount reached 68.2 billion won.

We can see this government policy to nurture skilled workers for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establishment plan of Iri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This school was established to nurture excellent technician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To attract outstanding students, tuition and admission fees were waived and dormitories were provided. According to the study mentioned above, there was a problem with budget execution due to the late opening of the school. However,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it while spending school operating expenses and dormitory construction facility expenses with a reserve fund. As these technical high schools were establish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they contributed to the cultivation and production of skilled manpower.



Support for facilities was also required to provide technical high school education tangibly. In 1977, a total of 8.7 billion won was provided for facility expenses for 82 technical high schools. In 1978, 9.8 billion won in facility expenses was provided for the same number of schools. Further, the government also campaigned to donate practical lathes to technical high schools to strengthen practical education for the students.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expansion of technical high schools and commercial high schools in the 1960s and 1970s for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As the Korean economy experienced industri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1960s and 1970s, social demand for technical and commercial professionals increased. In this regard,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especially technical high school and commercial high school education, has greatly expanded. In the 1970s, the Korean economy develope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training and production of technical human resources became important. The government actively invested in technical high schools. This led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echnical high schools in the 197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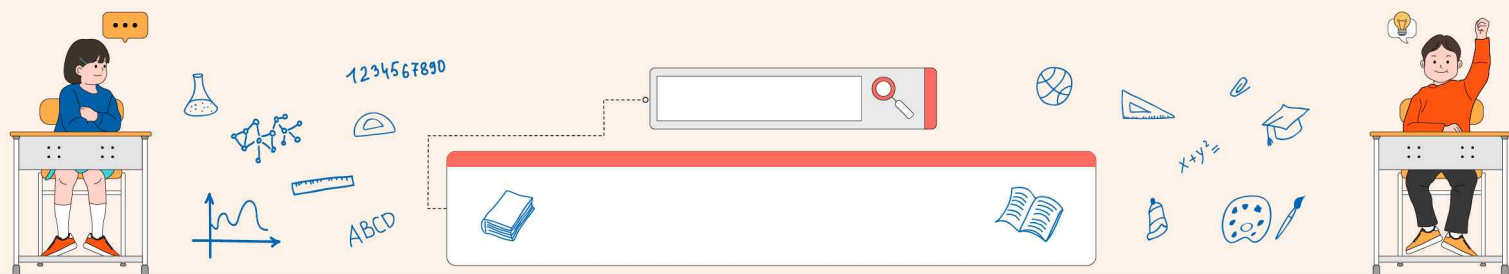
Let me wrap up the fourth section on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In this section, I looked at the process of change in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the present. I looked at the birth of second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and its spread after the 1960s. And I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and recent policy issues related to high school education. I also reviewed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in the 1960s and 1970s,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high school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at the time. Next time, I will look at higher education in Korea.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4周

中等教育

4-1

殖民地时期的中等教育

各位学员，大家好!我是担任《韩国经济与韩国教育》讲座的高鲜。这次讲座我们来考察一下关于韩国的中等教育。

韩国的中等教育在1960年代以后开始扩大，在韩国经济通过产业化快速成长期间发挥了培养产业主力军的功能，之后还担任了奠定高等教育基础膨胀的作用。首先来看一下殖民地时期的中等教育。

韩国的近代中等教育在殖民地时期之前就开始萌生。1899年4月颁布了设立近代初级中学(初中)的中学校官制(国家法规)，并且1900年成立了汉城初中。1909年，中学的名称被改为高中，韩国成为日本殖民地后，再次被改为高级普通学校。十二岁以上，并毕业于四年制普通学校的男子可以进入高级普通学校。学习期限为4年。

该图为京城高级普通学校科学课上的情景。考虑到当时日本殖民时期的现实，可以看的出对部分朝鲜人的中等教育是以相当水平的精英教育来进行的。

京城高级普通学校在殖民地时期之前的1900年，作为韩国最初的公立中等教育机构设立的汉城中学的后身，解放后成为了京畿高中。从殖民地时期开始到实施高中平均化的1970年代中期为止，京城高级普通学校，还有京畿高中都以韩国最顶尖的精英学校而闻名。

女性可以去女子高级普通学校。虽然12岁以上并且四年制普通学校毕业的学生入学的条件与高级普通学校一样，但区别在于学习期限是3年，比男子学校短1年。高级普通学校和女子高级普通学校的授课年限自1922年第二次朝鲜教育令后各延长了1年，分别为5年和4年。韩国语课程也包括在必修课中。



高级普通学校和女子高级普通学校是为了韩国人学生而开设的学校。日本人分别在初中和高级女子学校接受教育。1938年的第三次朝鲜教育令将高级普通学校和女子高级普通学校的名称改为和日本学校相同的初中和高级女子学校。但更改名称后，朝鲜人和日本人的分离教育并没有完全消失。虽然被称为同样的初中和高级女子学校，但朝鲜人学校和日本人学校仍然被区分。

画面中的照片是1916年公立女子高级普通学校的上课场面。朝鲜女学生们在上刺绣课。女性教育除了一般的课程外，还根据当时的女性教育观进行了刺绣课程等单独的课程。

另外，还有进行实业教育的实业学校。实业学校最初是2年至3年制的学校，但在第二次朝鲜教育令后更改为毕业于6年制普通学校后入学并进行3年至5年教育的方式。还有为4年制普通学校的毕业生提供2年课程的实业补习学校。实业学校中包括农业学校、商业学校、工业学校、水产学校等。

这张照片是在1920年代时，日本任命的朝鲜总督正在视察现位于朝鲜地区的北青公立农业学校的照片。可以看到大规模的近代式二层建筑和为了迎接总督穿着制服排队学生。

殖民地时期培养小学教师的师范学校也是中等学校的一种。殖民地时期初期，还没有专门的师范学校。在官办高级普通学校和官办女子高级普通学校设立了1年课程的师范系，培养了小学教师。

1922年第二次朝鲜教育令后，5年制师范学校被新设为中学课程。高级普通学校毕业后，也可以转入师范学校练习科。最初，针对日本儿童教育的小学教师培训课程和针对韩国儿童教育的普通学校教师培训课程被分开运营。1938年第三次朝鲜教育令之后，两个课程合并为一个课程。

这张图是1940年代清州师范学校学生上课的场面以及集体照。当时的清州师范学校成为了现在的清州教育大学。

那么当时殖民地时期的中等教育的规模有多大呢？首先，让我们先来看看为朝鲜男生建立的高级普通学校。殖民地时期的1913年，只有3所高级普通学校。两所是公立的，一所是私立的。



三所学校的朝鲜学生人数为1232人。每所学校有400人左右，当时学习期限是4年，每个年级有100人左右。同年，高级普通学校教师有65人，一位教师的平均学生数为19人。可以看出这并不是针对所有人的普遍教育，而是以被特别选拔或被选中的少数人为中心的精英教育。

随着1938年第三次朝鲜教育令的宣布，高级普通学校合并为中学体系。所以高级普通学校的统计只存在到1937年。1937年的高级普通学校有27所，其中11所是私立学校。学生人数增到了15454人。

高级普通学校的课程与日本中学不同，由差异化配置组成，但也可以有日本学生就读。因此，就读于高级普通学校的日本学生也有175人。从1913年到1937年，高级普通学校无论是在学校数量还是学生数量上都在增加。但说到普及水平，规模还是很小的。

那么日本学校是什么样子的呢？以为日本人的中等教育机构-中学为例，1913年只有两所学校。学生人数为684人。到1937年，增至16所学校。日本学生人数为7313人，也有456名朝鲜学生上日本中学。因为原则上是允许朝鲜人和日本人一起上学的。

从1938年开始，高级普通学校也成为了中学，因为在统计中没有区分朝鲜中学和日本中学，所以很难准确把握当时的扩张趋势。从这个时期开始，殖民地政府，也就是总督府，开始扩大中等教育。

1938年一共有50所中学，其中13所是私立学校。到1942年，中学的数量增至71所，私立学校的数量也增至19所。私立学校几乎都是朝鲜人学校。1942年中学在校生数为朝鲜人25960名，日本人11209名。利用1940年的国税调查，即人口总调查资料的话，可以获得当时各年龄段的朝鲜人和日本人人数。

当时为初中学历的10岁至14岁的朝鲜男性人口为1398317人，而日本人的人口为31402人。大致比较一下，可以发现日本男性学龄人口的三分之一都上了中学。但朝鲜男性学龄人口中上中学的比例还不到2%。



以女子高级普通学校为例，1913年在3所学校有291名朝鲜学生。同年，为日本人开设的高级女子学校有6所，日本学生人数为946人。到1937年，女子高级普通学校的数量增至21所。有7147名朝鲜学生，还有一名日本学生。同年，高级女子学校有30所。

日本学生人数为11337人，在高级女子学校就读的朝鲜学生也有587人。从1938年开始，与高级普通学校一样，改为女子高级普通学校，并纳入高级女子学校统计。学校数量为54所，比一年前女子高级普通学校数量和高级女子学校数量的总和增加了3所。私立学校有11所。

到1942年，高级女子学校总数增至71所。女性中等教育也在殖民地时期末经历了成长。有12所私立学校。日本学生人数为15339人，仍然高于朝鲜学生人数14313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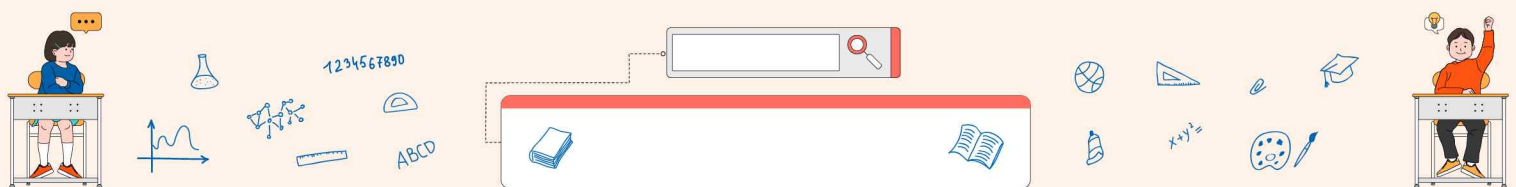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以1940年人口为准，比较10至13岁的女性学龄人口，以日本女性学龄人口为主的高级女子学校入学率在60%以上，但以朝鲜女性学龄人口为主的高级女子学校入学率在1.3%左右，比男性的入学率还要低。

殖民地时期职业学校的情况也类似。据朝鲜诸学校一览资料显示，1913年职业学校数量为17所，农业学校14所，商业学校3所。实业学校的学生人数为1471人。略小于高级普通学校和女子高级普通学校学生人数的总和。

到1942年，职业学校的数量增加到92所。其中农业学校占一半以上，有49所，商业学校30所，工业学校9所，水产学校4所。学生总数也增至24530人。与殖民地时期初期相比，规模变得相当大，但仍然小于中学和高级女子学校朝鲜学生人数的总和。

接受殖民地的中等教育后，以后会选择怎样的职业呢？屏幕上的表格是林依朗在2022年的论文中整理的1927年高级普通学校毕业生的现状。毕业生总数为688人，其中149人就业，237人在家工作，191人升入上级学校，4人死亡，以及其他107人。

上级学校包括当时殖民地朝鲜的京城帝国大学预科或多所专科学校、日本的旧制高中和专科学校、大学、满洲专科学校、大学等。上级学校的升学率整体平均为28%，以第一名牌学校闻名的京城第一高级普通学校的升学率更高，达到35%。



殖民地时期的中等教育，特别是高级普通学校和女子高级普通学校教育，是在中等教育普及之前，世界各地常见的一种精英教育，起到了延续高等教育、培养精英的作用。

以上总结了殖民地时期中等教育的诞生与成长。殖民地时期正式建立了近代式中等教育体系。男性的人文教育是通过高级普通学校进行的，而女性的人文教育是通过女性高级普通学校进行的。朝鲜学校和日本学校原来是分开的，但从1938年开始以日本方式将男子学校合并为中学，女子学校合并为高级女子学校。

殖民地时期的中等教育，特别是男性的高级普通学校教育一直是以精英为中心的教育。不到2%的学龄人口进入了这些学校，毕业后大部分人进入了专科学校、大学等高等教育机构。实业教育是通过实业学校进行的。下一节课让我们来看看解放后中等教育的普遍扩散。谢谢。



4-2 中等教育的扩散

学员们，大家好。在上一节课上，我们回顾了殖民地时期中等教育的诞生和成长。这节课我们来看看韩国解放后中等教育普遍扩散的过程。

到殖民地时期为止，中等教育都是以精英为中心有限地进行的。女性受教育机会也受到了限制。那么是从什么时候开始，韩国的中等教育开始普遍扩大，性别差距开始缩小的？其背景又有哪些因素呢？

学龄人口与入学人数的比例，即入学率呈持续增长的趋势。屏幕上的图表显示的入学率趋势显示，韩国初中和高中教育的扩大趋势间隔了一定时间后出现了相似的情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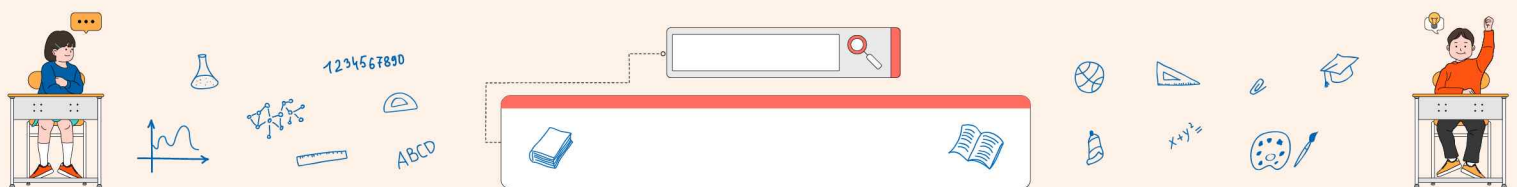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用红色线标记的初中入学率在1970年左右缓慢增长，达到50%，此后增长比以前更快。1979年初中学入学率超过90%，第二年1980年超过95%。

用蓝色线标记的高中入学率会随着中学入学率的发展而变化。高中入学率在1972年超过30%，到80年代中期开始快速增长。20世纪80年代中期以后，虽然速度有所放缓，但仍呈现稳步增长的态势。高中入学率1986年超过80%，1995年增加到90%，1999年增加到95%以上。

和殖民地时期一样，解放后升入中等教育也要经过激烈的竞争后才能被选拔。过度的入学考试竞争成为了社会问题，1969年，从首尔开始中学开始实行了免考制度。

从1974年，在首尔和釜山开始实施高中平均化政策后，高中的入学考试竞争才有所缓和。因为在各地区实施联合考试，选拔全体名额后，根据学生的居住地学区随意分配，所以为了进入名牌高中的竞争就消失了。

在对初中和高中教育需求较高的情况下，扩大中等教育是通过增加学校数量来实现的。1962年，每一千学龄人口中就有0.69所中学和0.43所高中。此后的10多年里，这一数字一直没有太大的变化。这意味着，与学龄人口规模的增加成正比例，学校数量也随之增加。从70年代中期开始，初中数量的增长变得比学龄人口增长更快。



进入21世纪后，每一千学龄人口中就有1.5所中学和1.1所高中。此后，最近每一千学龄人口中的初中和高中数量再次增加，但出现这种情况的原因是因为学龄人口的减少。

殖民地时期，中等教育以男性为主，女性受到教育的机会有限。解放后情况也差不多。解放初期，中等教育的性别差距还很大，但随着时间的推移逐渐缩小。中等教育的扩大是通过增加对无法上学的学龄期人口的学校教育供应来实现的，在缩小性别差距的过程中也是如此。

1958年，小学义务教育系统即将完成时，初中的男女学生比例只有1 : 0.4。高中的男女学生比例不到1 : 0.3。但初中和高中的男女性别比在此后不断改善。初中的性别比例改善比高中更快。到1981年，初中男女学生比例超过了1 : 0.9。高中要到1992年，男女学生的比例才超过了1 : 0.9。

和初等教育一样，在学校教育的膨胀期，初中和高中也经历了过密的班级。殖民地时期的中等教育还是以精英为中心进行的，所以一位教师平均学生人数还没有那么多。殖民地时期高级普通学校也随着学生人数的增加，经历了教师人均学生人数的增加。但在1937年，每位教师的人均学生人数仅为27人。

1950年代后期，初中和高中的教师人均学生人数就达到30多人。初中教师的人均学生人数在此后的1980年增至45人，此后持续下降。虽然也有学生人数减少的原因，但也是因为不断增加学校的供应和教师的聘用来提高是学校教育的质量。2020年的初中教师人均学生数为11人左右。

以高中为例，从50年代后期到80年代后期，教师人均学生人数一直保持在30人左右。因为教师的人数也随着学生人数的增加而迅速增加。此后，高中教师人均学生人数也像初中一样迅速减少，以2000年为准达到人均学生人数为10多人的水平。

在中等教育中，教师中女性的比例也在不断增加。1959年，初中教师中女性的比例只有十分之一，高中只有二十分之一。中等教育中实施了单性教育，即为男校和女校相互分离的情况较多，并男校的老师大部分为男性。

女教员的比例在此后不断增加。到1990年代，初中教师的女性比例超过了50%。现在中学教师的女性比例达到了70%。最近高中教师中女性的比例超过了50%。



韩国中等教育的特点之一是私立学校的比重很大。目前，在韩国的中等教育中，公立学校和私立学校的区分并不大，实际上学生也是根据各学区的分配原则，不分公立和私立，随意分配学校升学。

可以认为，这种体制是在扩大中等教育的过程中积极利用私立学校政策的结果。根据从1969年开始的中学免考升学制度和1974年开始实施的高中平均化政策，政府对私立中等教育机构提供了人工费和运营费支援。

一些历史较长的私立初中和高中的历史可以追溯到大韩帝国末期。但是殖民地时期的中等教育的增长主要是通过设立公立学校来实现的。因此，在朝鲜战争之后不久的1953年，初中和高中中私立学校的比例还不到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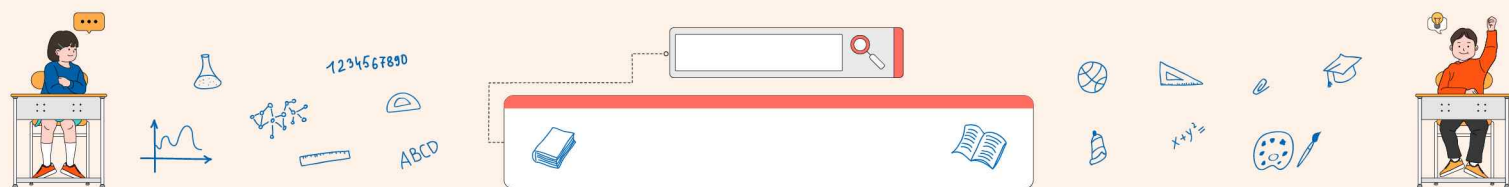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但此后在扩大中等教育早期阶段中，随着建立的私立学校多于公立学校，它们开始发挥了一定的作用。初中中私立学校的比例在免考升学制开始实施之前的1968年增至45%以上。

1980年代初期，在高中中一半以上也是私立学校。但此后，新设立的私立学校越来越少，随着中等教育通过建立公立学校扩大，私立学校的比例不断减少。近期，中学中私立学校的比率已降至20%以下，高中中私立学校的比率已降至40%以下。

自1965年以来一直在编制毕业生去向的统计数据。该数据是每年的毕业生升入上级学校或就业的比率。因此，那些在毕业的同一年未能成功升学，并为在下一年的入学做准备的人，即所谓的复读生，将被排除在升学率统计之外。考虑到韩国大学升学中复读生的比例相当高，那么大学升学率可能会高于这个统计数据。

1965年，当时70%左右的中学毕业生升入高中。当时中学入学率才刚超过40%，升入高中的学龄人口比例还不到30%。随着中等教育的扩大，高中升学率也有所提高。到1981年，90%以上的毕业生升入高中，直到1987年，90%以上的初中毕业的女性也升入高中。

到1990年代初期为止，大学升学率约为40%。升学率的性别差异在1970年代之前不大，但在1980年代有所扩大。从1990年代中期开始，大学升学率迅速增加，2000年代这一数字一度超过了80%。



大学升学率的增加也与高中毕业生就业率的下降有关。1960年至1970年代高中毕业生就业率为20%至30%。当然，人文系高中和实业系高中之间存在着些许差异，关于实业系高中毕业后的就业问题，以后会另行讨论。

高中毕业生的就业率从1990年代开始迅速下降，2000年代初降至10%以下。此后，在2013年左右，高中毕业生就业率略有上升，这与当时的高中毕业生就业振兴政策有关。

以上总结了韩国中等教育普遍扩大的过程。韩国的中等教育是随着建立更多的初级中学和高中而扩大的。在扩大中等教育的过程中，将最初以男性为主的教育逐渐转变为向女性提供平等机会的部分也很重要。

即使在中等教育充分扩大之后，仍然继续努力通过增加教师的聘用人数来提高学校的教育质量，其结果为教师人均学生人数一直在稳步下降。

教师中女性的比例也在不断扩大。在韩国中等教育中，私立学校的比重很大，这是因为政府支援了人工费和运营费，并在扩大中等教育的过程中积极利用了私立学校。下一节课我们的要考察的焦点是高中，将其分为人文系与实业系两个领域来考察。



4-3

人文系实业系高中

学员们，大家好。在上一节课上，我们回顾了韩国中等教育普遍扩大的过程。本节课将高中分为人文系高中与实业系高中两个领域分别来看一下。这事实上，人文系和实业系领域不再是官方的高中分类类型。

从2011年以后，韩国将高中类型分为普通高中、特殊目的高中、特性化高中、自律型高中。但是，在韩国教育形成和发展过程中，以升入大学为目标的人文系高中和通过专业教育培养产业人才为重点的实业高中分开来看也很有意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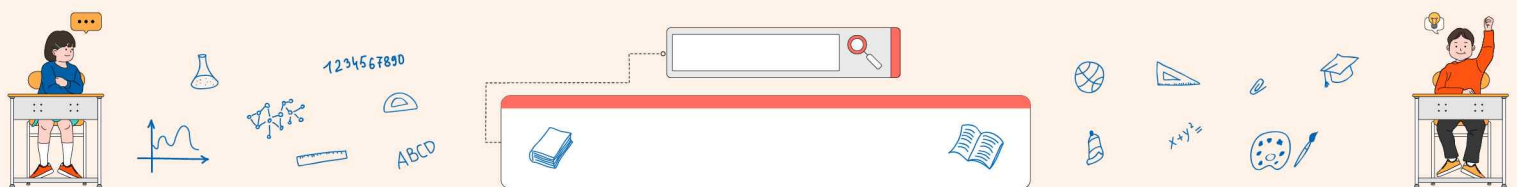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在韩国战争结束两年后的1955年，韩国共有550所高中，其中人文系高中有311所，实业系249所。班级数量为人文系2096个，实业系1857个，虽然实业系的班级数量少，但差异不大。其后扩建了人文系高中和实业系高中，到1968年，实业系高中的数量已经超过了人文系高中。

此时，实业系高中的大部分是实业系和人文系混在一起的综合高中，1974年引入高中平均化后，大城市地区综合高中的大部分都转换成为了人文系高中。因此，从1974年开始，人文系高中再次增多。之后到目前为止，人文类高中不断增加，但实业系高中的增长趋势较为缓慢，并从90年代末开始有所减少。

仅从人文系高中来看，到1989年为止，学生人数快速增加。此后，人文系高中学生人数呈涨跌趋势。这与人口结构有关。

在韩国，出生儿童数量从1970年代初开始减少。出生年度队列规模最大的这一代人经过高中的时期就是1980年代末。所以从人口结构来看，此后学生数量减少是很自然的。但是，随着人文系和职业系之间升学比率的变动、高校升学率的提高级各种原因的吻合，实际上多少会有些许变动。

在1950年代，人文系高中的女生比例仅为30%。1960年代中期，女生比例超过40%，此后不断增加，直到现在实际上几乎没有性别差异。



与此同时，就读私立学校的学生比例从1950年代开始已接近一半，此后随着私立学校的作用进一步扩大，这个比例在1990年代初上升至63%。但后来扩建了很多公立高中，因此私立学校的比例下降到了40%左右。

到1980年代为止，实业高中的学生人数也以类似的趋势增加。1986年以后，实业高中的在校人数有短暂下降。并在1990年代初再次增加，在1997年达到顶峰，此后迅速减少。实业系高中学生人数减少是因为随着经济增长和产业结构的变化导致高中毕业生就业率下降，以及高中学历毕业生和大学学历毕业生之间的工资差距扩大的结果。

到1950年代为止，实业系高中的性别比人文系高中更偏重于男性。此后，女学生进入实业系高中的人数也有所增加，直到1980年以后，男女比例才达到与人文系高中相近的水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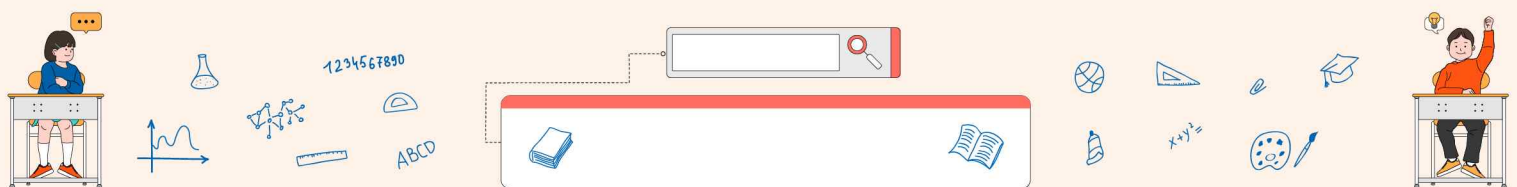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在实业系高中学生中，就读于私立学校的学生比例也低于人文系高中，在1980年代才达到了相似的水平。另外，实业系私立高中的特点是女生比例更高。自1970年代后期以来，大约60%的实业私立高中学生是女学生。这是因为实业系高中中有很多女子商业高中。

人文系高中在初期是为学生进入大学做准备的机构，但同时也是最终学历阶段。在1960年代和1970年代各年度的人文系高中毕业的男生中，直接进入大学和专科学校的比例略高于40%。而女生们略低，还不到40%。

这个数值应该低于实际的大学升学率。因为不包括那些为了进入更好的大学而不就业，继续准备高考的所谓复读或三修生。

1980年代以来，人文系高校的大学升学率开始正式上升。直到1990年代，女生的升学率甚至比男生的升学率还要高。人文系高校当年的升学率在2000年代初曾超过90%，但此后有所下降，目前在80%左右。

从1970年开始提供人文系高中毕业生的就业率，当时也只有10%。因为人文系高中本身是为了升入高等教育的机构，而且男生在就业之前还需要履行服兵役义务。



随着技术进步和经济增长，产业结构高度化，劳动力市场对人文系高中毕业生的需求逐渐下降也起到了一定作用。自1990年代中期以来，人文系高中就业率一直在下降，目前几乎降至毫无意义的水平。

实业系高中是为了培养专业人才而设立的，在过去就业率很高。1970年就业率为50%，此后持续增长，直到1990年代初接近80%。但此后，随着高校毕业生的工作岗位减少，与大学毕业生的工资差距扩大，实业系高中毕业生当年的就业率呈快速下降趋势。自2008年以来，就业率已降至20%以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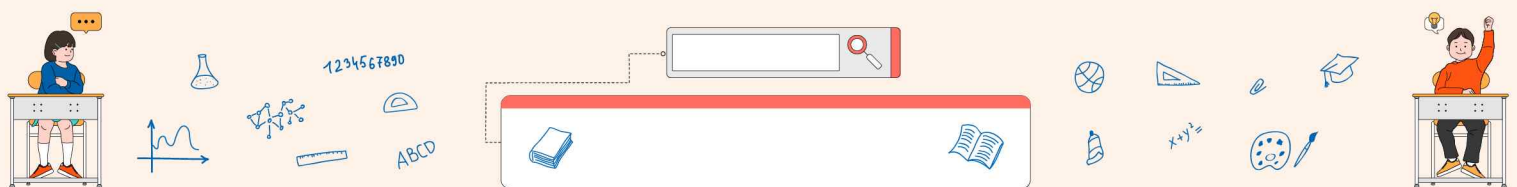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实业系高中毕业生当年就业率的下降与大学升学率的增加相吻合。1970年实业系高校高校毕业生当年的大学升学率为男性10%，女性7%。但是，实业系高中毕业生的专科和大学升学率从1990年代开始不断增加，2008年男女都超过了70%。

虽然这是因为随着产业结构的变化，高中毕业生的工作岗位逐渐减少，高中毕业生和大学毕业生之间的工资差距扩大，但当时政府将高中毕业生的就业率下降，特别是专业高中毕业生的就业率下降视为社会问题，并采取了相应的政策。高中体系的重组和扩大高中毕业生招聘政策就是其中的一个例子。对此，我们将在下一节课中进一步了解。

当时政府的政策起到了一定的作用。高中体系重组后，作为接替实业系高中的特性化高中的就业率从2010年开始回升。2017年增长到50%。但在此后再次暴跌。2021年的特性化高中就业率为26%，与2000年代初出现的实业系高中就业率下降现象基本相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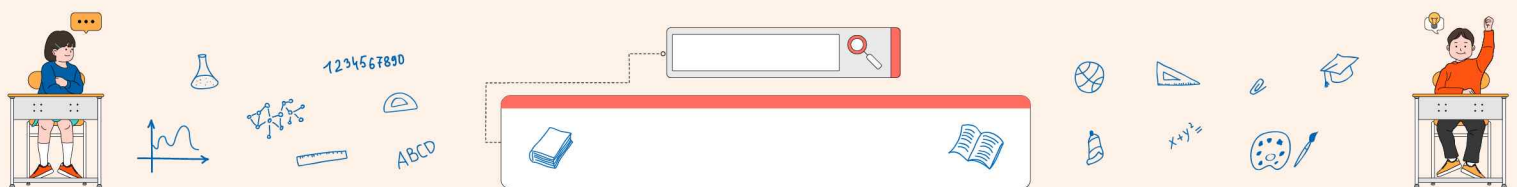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但把从2000年代初期出现的实业系高中就业率下降和目前特性化高中就业率下降的比较来看，最近的升学率水平也比过去有所降低，在这一点上存在差异。随着特性化高中就业率的提高，升学率便会下降，之后随着就业率的下降，升学率再次上升。

2022年特性化高中升学率在50%左右，女生升学率略高于男生升学率。与2006年实业系高中26%的就业率，达到60%至70%的升学率相比，现在的升学率要比当年低一些。



到目前为止，我们将高中分为人文系高中和实业系高中，总结了截至2010年韩国高级教育的数量变化。人文系高中和实业系高中都在韩国后期中等教育的膨胀中发挥了主要的作用，最近后期高中教育正在以人文系为中心进行重组，并且以前实业系的专科高中教育正在减少。

这是因为整体上高等教育升学率总体上有所提高，而高中就业率在大幅下降，即使在实业系高中也是如此。如之前所述，从2010年开始，政府开始对高中的体系进行改革，特别是鼓励高中毕业生的招聘等，将展开一系列新的政策。下一节课我们将讨论2010年以后高中政策的变化。谢谢。



4-4 近期高中政策热点

学员们，大家好。上节课我们将高中分为人文系和实业系，考察了韩国高中教育的数量变化。这节课我们来看看最近与高中相关的政策两个问题。

第一个是与专业高中相关的政策。高中毕业生，特别是专业高中毕业生的就业率暴跌后，政府从2010年开始实施了一系列扩大高中毕业生招聘的政策。让我们来看看这些策略的内容和效果。

第二是围绕高中教育的多样性和卓越性的政策。2000年代以后，出现了强调高中教育的多样性和卓越性的特殊目的高中和自律型私立高中，并扩大了一段时间。但也有人批评这些学校，最近还有人提出废除特殊目的高中和自律型高中的意见。

首先，让我们来看看扩大高中毕业生招聘的政策。

传统上，韩国的高中教育，即后期中等教育，分为培养就业专业人才的专业高中和升入高等教育的人文系高中。特别是专业高中，即当时的实业系高中，从60至70年代开始，在提供支持快速工业化和经济增长的专业人才方面发挥了重要作用。

但在90年代达到顶峰的专业高中教育逐渐衰退，实业系高中毕业生就业率急剧下降。随着经济持续增长，产业结构高度化，高中和大学毕业生之间的工资差距迅速扩大。此外，专业人才的培养功能转移到了专科大学。

在这种情况下，从2011年开始实施扩大高中毕业生招聘政策。政策目标是增加高中毕业生的工作岗位供应，支持专业高中。

首先，在公共机关和公务员招聘中实行了只选拔高中学历者的配额制，对于私营企业，如果聘用高中学历者，将提供税制优惠。对于聘用特性化高中等专业高中毕业生的中小企业，优先安排在一定时期内在该企业工作并得到兵役义务履行认可的产业技能人员定员。



在高考中也鼓励了先就业后升学，即高中毕业后先就业，之后以在职人员录取的形式进入大学，并在特性化高中扩大配备了就业支援专业人才。

根据郑熙珍和高鲜的研究，这些扩大高中毕业生招聘的政策取得了有意义的成果。过去是实业系高中，之后成为特性化高中或迈斯特（meister）高中的专业高中毕业生的就业率增加了8.7%，比以前增加了36%。

这对男性的影响比女性更大。随着就业率的增加，大学升学率下降，表明扩大高中毕业生招聘政策起到了让专业高中毕业生选择就业而不是上大学的效果。

韩国高中的教育中一直存在争议的另一个问题是如何在教育中的平等和卓越性之间取得平衡。自1974年在首尔和釜山实施高中平均化制度以来，高中教育一直以更加注重平等的方式发展。所以没有选择根据学生排名的学校，而是将学生随机分配到附近的学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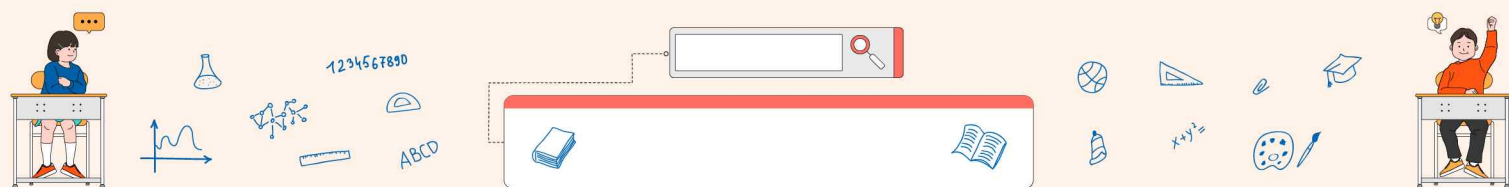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让公立学校的教员在同一工资体系下循环工作多所学校，私立学校教员的人工费由教育局支援。学校设施投资也由教育局主导，所以学校之间的差距实际上不大。

但在近距离分配制度下，也出现了不同居住地的教育差异问题。大城市和农村地区之间出现了差距，在首尔，随着公寓住宅的开发，以白领和专业职业从事者为主居住的江南地区等相对学业成绩优秀的学生聚集在一起，由具有同质背景的学生组成班级，在教育方面也成为了首选地区。

教师也可以自主选择工作地点和学校，也出现了教师喜欢工作的学校和不喜欢工作的学校区分的现象。

在这种背景下，出现了一系列特殊的高中，反映了强调卓越性教育的意见。这些学校被称为特殊目的高中，原本特殊目的高中是指一些实业系学校或在平均化制度下很难安排学生的学校。

但是，随着对英才教育的需要，从1983年京畿科学高中开始，在全国开始设立公立科学高中，1987年这些学校被批准成为特殊目的高中。以此为起点，特殊目的高中成为了指代实施卓越性教育的特殊高中的名词。



同一时期的1983年，大元外国语学校、1984年代大一外国语学校成立，这些学校的重点是外语教育，起初这些高中属于毕业后学历不被认可的各类学校。

但从1992年开始，它被认可为特殊目的高中的一种形式——外语高中，此后许多私立外语高中成立并运营。还有一些公立外语高中。1993年艺术高中、体育高中也成立为特殊目的高中，1998年还成立了国际高中。

以2021年为准，韩国有161所特殊目的高中。科学高中28所，外语高中30所，艺术高中27所，体育高中17所，国际高中8所。其余51所学校是专业学校，是运营产业需求定制课程的迈斯特高中。

随着自律型高中，特别是自律型私立高中的出现，围绕着高中教育中的卓越性和多样性的争论愈演愈烈。2002年，为了使教育多样化，提高私立学校在学校和课程运营上的自主性，政府引入了自律型私立高中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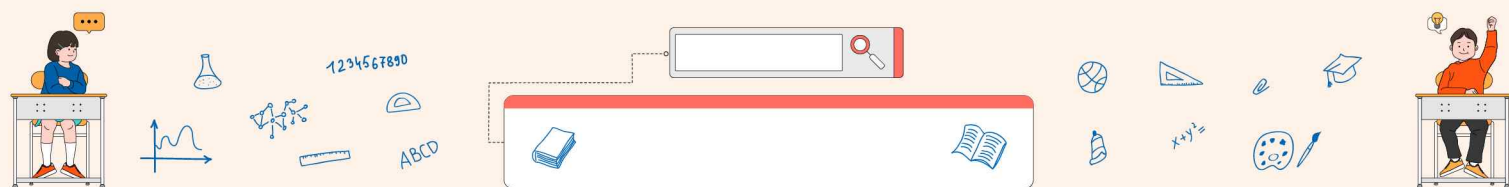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这些学校在学校和课程运营方面获得了一定的自主性，学费高于普通学校，并给予一定的办学自主权和课程设置。从经营学校的公司转移到学校的强制性成本负担也更大。

此后，从2009年开始引入以广域市道为单位选拔学生自主运营的自律型私立高中制度，从2011年开始与自律型私立高中合并为自律型私立高中。

自律型私立高中通常会选拔优秀的学生进行强调卓越性教育。但是高中教育被认为是为了以后上大学的成果，所以这些学校被视为为了能够成功进入名牌大学或医学院，最终会把能够负担起昂贵学费并成绩优秀的学生聚集在一起竞争的学校。

那些批评这种教育是精英教育的人主张废除特殊目的高中和自律型私立高中，随着所谓的进步教育总监和进步政治势力掌权，采取了减少并最终废除这些学校的政策。

也有一些在招生和财政支援方面遇到困难的自律型高中自行转换为普通高中。以2021年为准，韩国有38所自律型私立高中，其中21所在首尔。



另外，2010年为了支援教育条件恶劣地区的公立高中，引进了自型公立高中制度。如果教育总监将其指定为自律型公立高中，学校和课程将可以在获得财政支持的同时自主运营。其目标是为了提高学校的教育能力，最终缩小地区或阶层之间的教育差距。

但此后，随着加强普通高中能力和扩大学校课程自主权的政策实施，普通高中与自律型公立高中的差距缩小，随着到2025年为止，阶段性地引进高中学分制的计划的制定，自律型公立高中也呈现出减少的趋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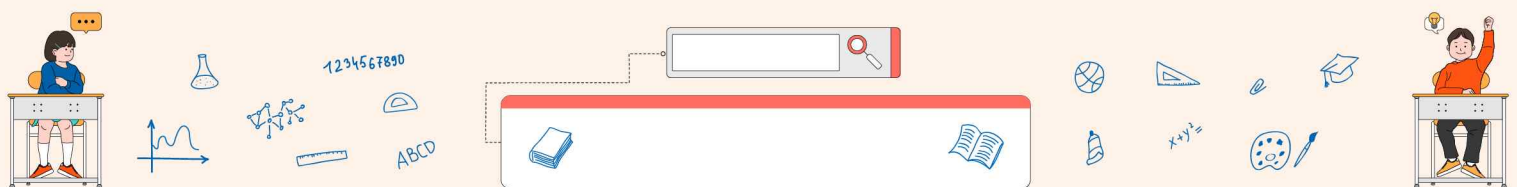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以2021年为准，韩国有72所自律型公立高中，首尔已经全部转换为普通高中，没有一所自律型公立高中。

到此为止，我们总结了2010年以后围绕韩国高中的两个话题。第一个是关于对专业高中的支持。随着产业结构和经济环境的变化，专业高中就业率骤减，政府从2010年开始通过扩大高中毕业生就业政策支持专业高中。

在各项促进高中毕业生就业的政策作用下，特性化高中毕业后的就业率有所提高。但是，在产业结构高度化和经济环境持续变化的情况下，如何应对政策似乎需要更多的讨论。

另一方面，2000年代科学高中、外语高中、国际高中等特殊目的高中扩大，2010年以后出现自律型私立高中，高校教育强调卓越性和多样性的观点引发了争议。在各种说这些学校收取昂贵的学费，并成为只把重点放在进入名牌大学上的精英教育机构的批判声中，特别是外国语高中和自律型私立高中正在萎缩。

但也有人认为，学生应该选择多种教育，而不是为所有学生提供一刀切的教育，以及需要一些针对优秀学生的卓越性教育。因此，根据决定教育政策的学教育总监的选举或总统的选举结果，相关政策的方向往往会发生重大变化。下一节课，我们将探讨中等教育与1960年代和1970年代韩国经济增长的关系。谢谢



4-5 中等教育与韩国经济增长

各位学员，大家好！上一节课我们回顾了2010年以后围绕韩国高中的两个话题。这节课我们来看看韩国中等教育如何与1960~70年代韩国的工业化和经济增长相互关联。

实现工业化的1960年代和1970年代，对技术人才的需求快速增加。并且，培养技术人才的专门教育也在扩大，这导致了实业系高中，特别是工业高中的增加。

如之前所述，1961年为280所的实业系高中在1980年增加到605所。学生人数也将从1961年的100954人增加到了1980年的764187人。这种实业系高中教育的膨胀主要是由工业高中和商业高中主导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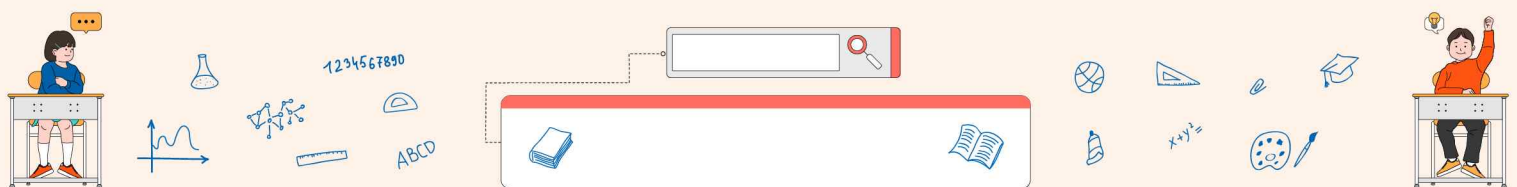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直到1960年代中期，实业系高中中农业高中的数量最多。因为韩国的主要产业仍然是农业。但此后商业高中和工业高中急剧增加，而农业高中的数量从1970年代开始大幅减少。这是工业化和经济增长对现场专业技术人才和支持企业运营的管理人才的需求显着增加的结果。

1960年代和1970年代是学校规模扩大、班级过密的时期，学校数量并没有表现出整体的教育膨胀。从学生人数的趋势来看，可以发现工业高中的增长速度并不亚于商业高中的快速增长。

事实上，1965年至1979年间，商业高中学生人数增加了约4.22倍，而工业高中学生人数几乎增加了5倍。对于农业高中来说，尽管学校数量减少，但学生人数仍保持类似水平。

高就业率推动了实业系高中教育，尤其是商业高中和工业高中的扩张。1965年，工业高中的就业率还略高于50%，农业高中的就业率为43%，而商业高中的就业率仅为37%。

但此后工业高中和商业高中的就业率迅速上涨。直到1970年代末，工业高中的就业率达到70%以上，商业高中的就业率达到60%以上。此后，1990年工、商、农业高中的毕业生就业率上升至80%。



特别是1970年代，政府为实现重化学工业，积极投资技术人才的开发，这成为了工业高中膨胀的背景。据朴永九研究，1973年至1979年间，政府对技术教育和职业教育的投资中，约有70%用于工业高中教育。国内资本538亿韩元和外国资本2,969万美元用于工业高中的教育，总额达到682亿韩元。

当时的政府政策，积极投资工业高中，为重化学工业培养技术工人，这在裡里机械工业高中的设计划中可见一斑。该裡里机械工业高中的设立目的是培养重化学工业所需的优秀技能人才。为了吸引优秀的学生，免除了学费和入学费，宿舍也得到了支援。

据朴永九的研究显示，当时因为开学时间晚导致预算执行出现问题，但政府将学校运营费和宿舍建设设施费作为储备金积极支持。这些工业高中在全国各地设立，为培养技能人才做出了贡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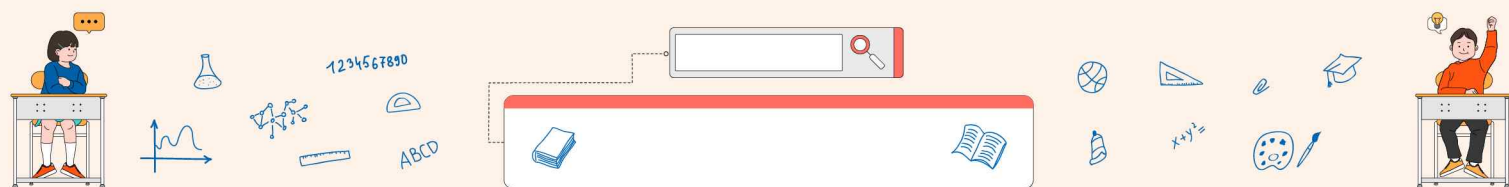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为了充实地提供工业高中教育，还需要对设备的积极支持。根据朴永九的研究，1977年对82所工业高中共支援了87亿韩元的设备费，1978年对同样数量的学校也支援了98亿韩元的设备费。此外，为了加强工业高中的实习教育，还在国民中开展了向工业高中捐赠实习用架子的活动。

以上总结了1960~70年代工业高中和商业高中的膨胀，特别是1970年代工业高中在重化学工业化中的作用。

1960~1970年代，随着韩国经济经历工业化和快速经济增长，社会对技术和商业专业人才的需求增加。与此相吻合，实业高中教育，特别是工业高中和商业高中教育大幅度膨胀。1970年代开展了重化学工业化，技术人才的培养开始变得越来越重要。政府积极投资于工业高中，带动了1970年代工业高中的成长和发展。

《韩国经济与韩国教育》第四讲的讲座就讲到这里。在此次讲座中，我们回顾了殖民地时期至今韩国中等教育的变化过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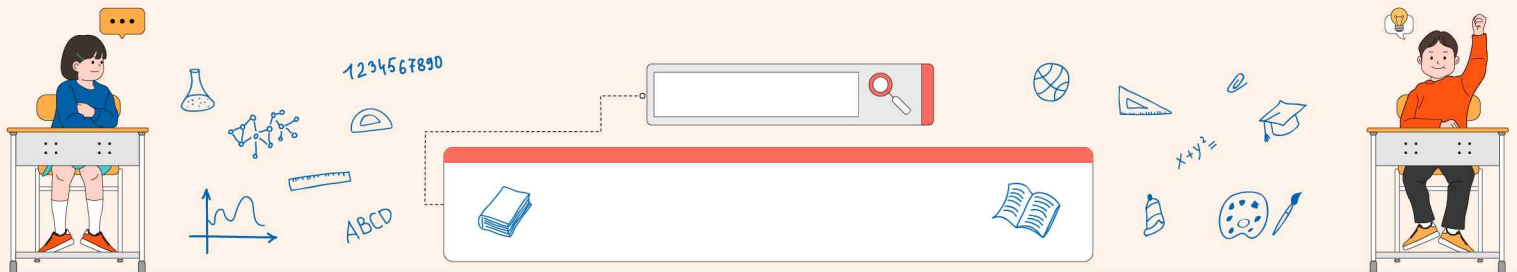
考察了殖民地时期中等教育的萌芽、1960年代以后中等教育的扩散、人文系高中与实业系高中的变化过程、最近与高中教育相关政的政策问题、1960~1970年代实业系高中的教育，特别是工业高中教育与当时经济增长的关系等。下面的第五节课将介绍韩国的高等教育。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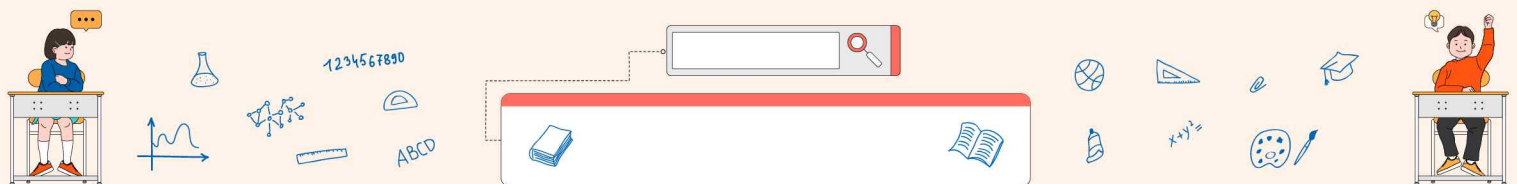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1 다음 중 해방 이전의 한국 중등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한국의 근대적 중등교육은 식민지기에 시작되었다.
- ② 식민지기 중등교육은 상당한 수준의 엘리트 교육이었다.
- ③ 여학교 수업연한이 남학교보다 짧았다.
- ④ 식민지기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중등교육이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정답 ①

해설 한국의 근대적 중등교육은 식민지기 이전부터 태동했습니다. 1899년 4월에 근대적 중학교 설치를 위한 중학교 관제가 공포되었고, 1900년에는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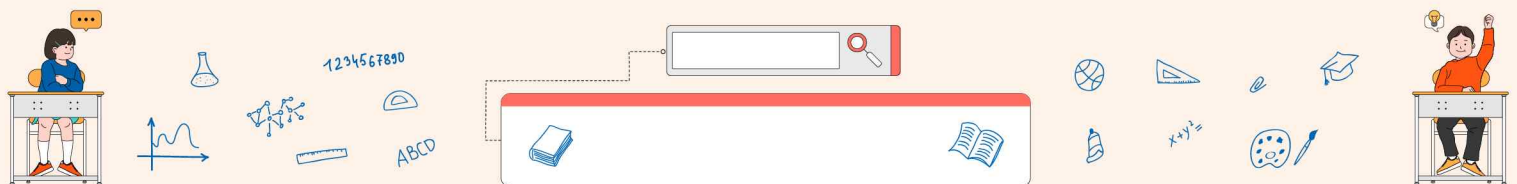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2 한국 중등교육의 확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확대 과정에서 교실과 교원보다 학생 수 증가 속도가 빨라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다.
- ② 중학교 교육 확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고등학교 교육 확대는 오랜 시간 동안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 ③ 식민지기와 해방 직후에는 중등교육의 성별 격차가 상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었다.
- ④ 과도한 입시 경쟁 문제를 경험했지만 현재는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학하며 학교는 임의로 배정된다.

정답 ②

해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령인구 대비 취학 인원의 비율, 즉 취학률은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인다. 한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확대 추이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슷하게 나타났다.



03 다음 중 한국 중등교육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분

- ① 교원 중 여성 비율이 높다.
- ②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다.
- ③ 대학 진학률이 높다.
- ④ 엘리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정답 ④

해설 한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은 보편화되었으며, 거의 모든 학령인구가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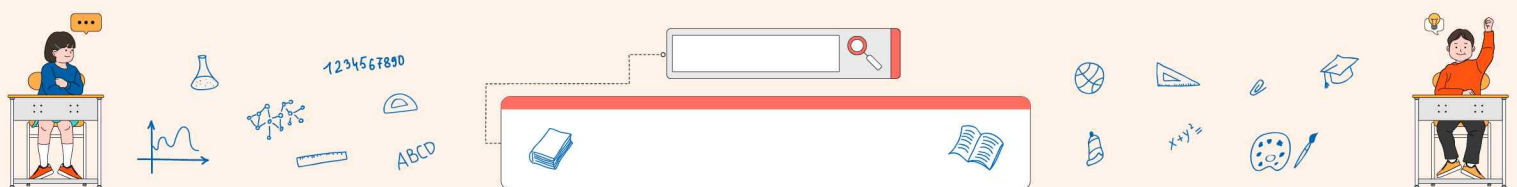
04 한국 중등교육의 확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불렸다.
- ② 현재 고등학교 분류 중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 ③ 1980년 이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④ 최근에는 졸업 후 취업을 하는 학생들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정답 ③

해설 1950년대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남성 위주였고, 인문계 고교와 비슷한 남녀 성비는 1980년 이후에나 달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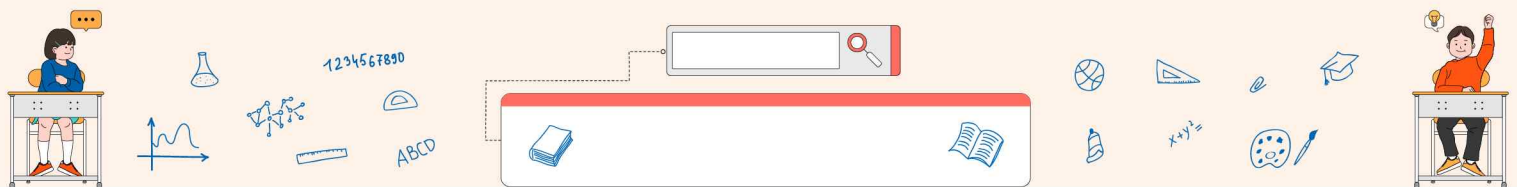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05 다음 중 2011년부터 펼쳐진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고졸학력 일자리 공급을 늘려 전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데에 목표가 있었다.
- ②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학력자만을 뽑는 할당제를 실시했다.
- ③ 민간 기업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④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정책효과가 있었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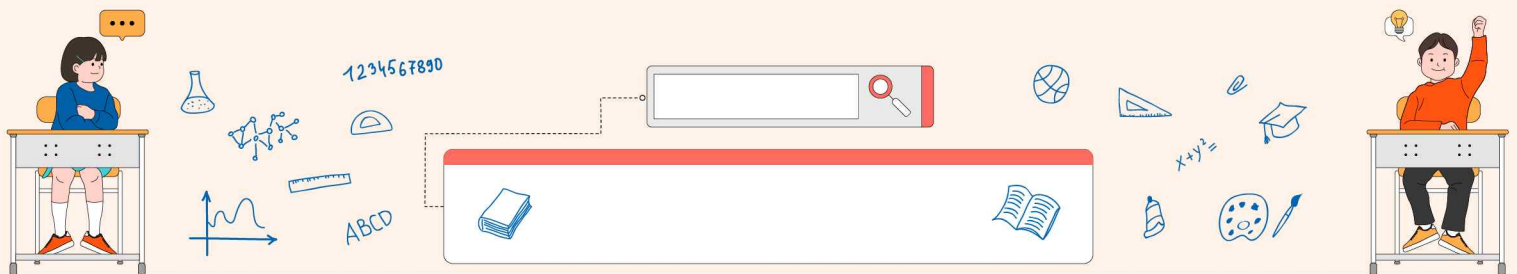
해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고졸 학력자를 채용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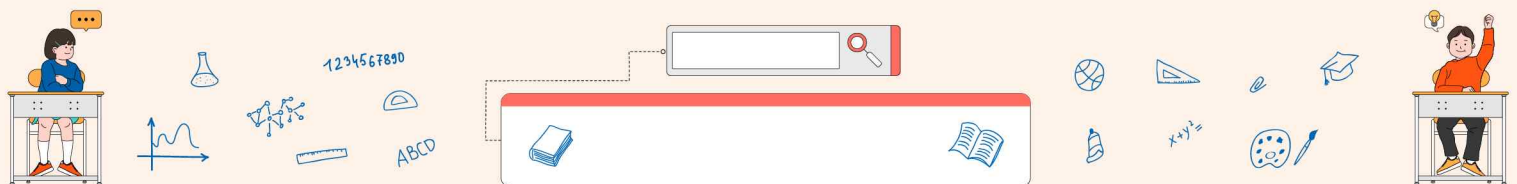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주제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교육하기 위한 고등학교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공교육은 평준화된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까요?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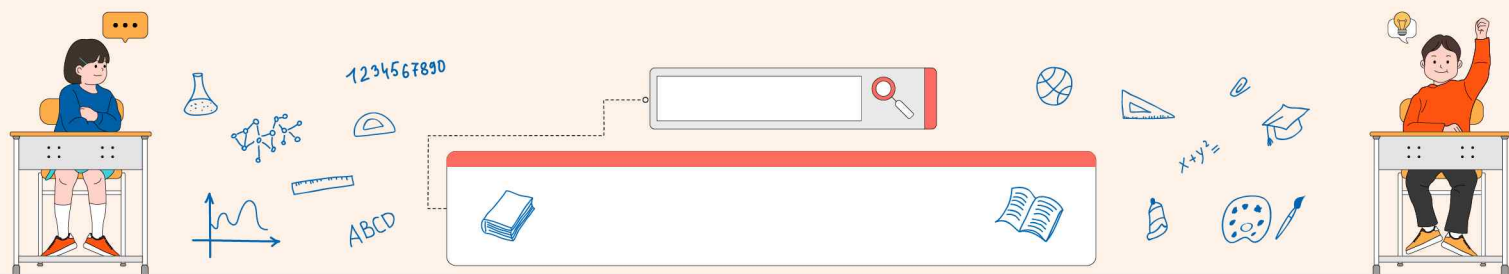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평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등이 설립되었으나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입시 교육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비싼 수업료를 징수하며 자율성을 부여받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평준화된 교육은 특히 성적이 상위권인 우수한 학생들의 역량 성장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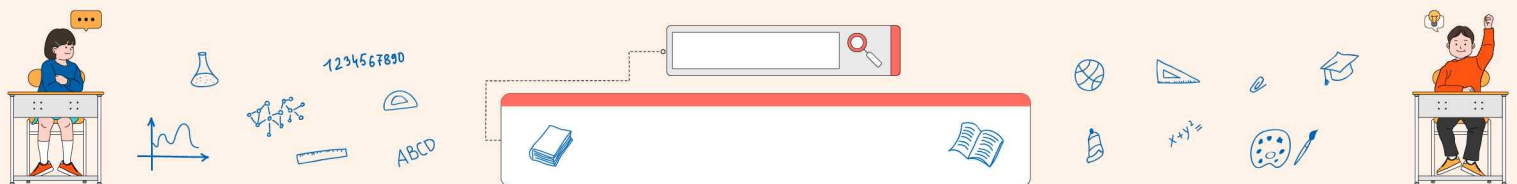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50년사. 교육부.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문교사: 1945-1973. 중앙대학교출판국.
-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 - 개화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 - 해방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영상

-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I 045 육영공원, 영어로 수업하는 근대식 국립교육기관

https://youtu.be/8Jo_tLT5M3E

-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I 046 최초의 근대식 영어교육기관 육영공원의 설립부터 폐교까지

<https://youtu.be/7JTdmPJDs7U>

-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I 047 사학의 영어교육 - 신분사회인 조선에 새바람을 일으키다

<https://youtu.be/Ee2mRNd9DCs>

-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I 048 외교관, 통역관 양성을 위해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다

<https://youtu.be/-JUNGxny7MA>

